

우리네아이들

714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0 11/12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275-8505-6 FAX : 2275-8506 KDTA (천리안) <http://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든간에, 남자인지 여자인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가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자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세계를 인정받는다라는 것이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다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꺼려하고 과부족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벗을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통권 78호 2000년 11/12월호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펴낸이 이윤경·이기원/

등록인 이경나, 김희정/펴낸날 2000년 11월 1일

2 권두언	차가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참정 치법	이윤경
4 보육정책1	보육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서문희
27 보육정책2	유아교육법 제정에 관하여	이윤경
35 특별기고	선자유주의적 세계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기선미
42 한일보육교류실태조사	일본의 보육과 보육제도	에다모토 신이치루
52 현장교육1	자연물을 이용한 악기	박부자
55 현장교육2	박물관 여행	이인희
57 현장교육3	놀이로 통한 아이들의 몸의 준비 '코니'	장효진
60 현장소식1	신입회원교육을 마치고...	이준덕
61 현장소식2	아주 특별한 만남	김인경
62 인물탐방기1	'진'을 좋아하는 이상옥 선생님	이경자
64 인물탐방기2	윤문주 선생님을 날자다!!	채미선
66 어린이와 건강	Let's Touch	신영호
68 한국보육정보 연구소	감을마기아들에게, 태일아웃~	조인숙
72 좋은 그림책 소개	바빠요 바빠	고영미
74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씩씩이에서 하룻밤 지내기	주혜민
77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공(公)과 사(私)가 분명한 씹씩이 아이들!	
79 육아일기	그저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	김연숙
82 세상읽기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	박상희
84 사이버 정보망	지구와 우주	임미란
85 시설 탐방기	'자연물을 이용한 작은 전시회'를 다녀와서	편집부
88 목소리	24시간 보육을 마치며.....	장정숙
89 알림란		편집부
92 소식과 소식		편집부
96 편집부에서		편집부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현장교육 1



시설 탐방기



가을도 훌쩍 지나 찬바람이 제법이다. 아이들은 지난 여름의 기억을 아직도 간직한 듯 밖으로 나가고 싶어 안달이고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감기를 이번만큼은 맞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부모와 교사의 마음이 천방지축인 아이들의 요구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는 계절이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다보면 보육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아동의 권리와 요구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일의 보람과 수고에 상관없이 보

| 권 두 인 |

차가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이윤경 · 본회 공동대표

육의 질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아직도 많은데 자신을 어느 만큼 평가할 수 있는지, 등등에 관한 온갖 생각들이 때때로 정리되지 않은 채 지나간다. 1년 365일 휴가 한 번 마음놓고 가보지 못하고 행사나 교구제작 때문에 아근을 수도 없이 해도 격려나 인정은 커녕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육교사의 현실이다. 새로운 교육사조에 대해 궁금해도,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재교육을 받는 일은 어쩌다 운이 좋을 때나 가능하다. 그러나 보육교사로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한 사람 같지 않겠는가!

보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가 이야기하는 상식이 되어 버렸지만 실질적인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제대로 배우고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원과 대학의 수많은 관련학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문제부터 사급히 정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영유아를 돌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영유아를 잘 돌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육에 대해 이론적, 실제적 교육과정이 정비되고 정말 자적있는, 준비된 교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급제도도 세분화되고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보육교사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 졌을 때 보육 프로그램의 질은 한층 좋아질 수 있다. 때문에 체계적인 재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재교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의 대체교사를 구하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대 아동의 비율 또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명의 교사가 20명의 아이들을 하루종일 완벽하게 돌보기란 불가능하다. 교사와 아이들이 다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 애정을 주고 받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대가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적절한 상호작용과 질 높은 보육이 가능하려면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

보육교사도 노동자다. 그것도 정신과 육체와 감성과 애정까지 모두 쏟아부으면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다. 노동자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제공하고 그 댓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가치를 부여받거나 댓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사랑과 헌신과 사명감도 생활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2-3년간의 짧은 헌신의 과정으로도 지치고 힘들어 그만두는 보육교사들이 너무나 많다.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교사들도 너무 많다. 보육교사의 직업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능력있고 경험많은 보육교사에 의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란 꿈일 뿐이다.

신문 지상에서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생겼다는 기사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제 몫을 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이런 일들은 사실 또다른 보육교사의 부주와나 일약한 시설 환경, 경험없는 시설장의 미숙함 등이 포괄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일 것이다. 보육의 질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을 때일수록 현장에서 부터 무엇을 바꾸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더 진지하고 책임있는 모색의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문제가 제도 개선만으로 충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보육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 시키고자 하는 모든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육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치있는 일일수록 쉽게 성취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때문에 더욱 멈추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가야 할 길이 멀다.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보육교사라는 직업의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기에 더 나은 보육현실을 만들고 싶다. 차가운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들꽃처럼 보육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말하고 또 말하자.

보육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

서문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래의 글은 본회와 공동육아연구원의 공동주최로 11월 15일 개최한 '보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라는 토론회의 주제발표 글입니다.

제1절 자격제도의 현황

1. 자격의 개념과 기능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자격이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정도로써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협소한 의미로는 자격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 인정한 증명서, 즉, 자격증(Certificate)을 의미하기도 한다. OECD는 국가의 자격이 지니는 공통적 요소로 지식체계(Set of knowledge), 노하우(Know-how), 자질(Qualification), 기술(Skills)을 들고 있다(정태화 외, 1998).

자격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정태화 등, 1998). ①자격은 우선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산 가치를 알려주는 신호기계의 기능을 한다. 학교가 다양화되고 학습방법이 다양해질수록 학력보다는 자격이 신호기계의 효과를 더 많이 갖게 된다. ②두 번째로 자격은 인적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써 사회 내에서 공통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신호기제로, 모집, 채용 및 적응훈련 비용을 줄여준다. ③세 번째, 자격은 한 개인의 직업능력을 나타내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격은 개인에게 경력개발의 기회를 주고 승진승급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능력개발의 촉진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④네 번째로 자격취득자의 직업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근로자가 자격을 통하여 자신이 인적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⑤다섯 번째로 자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작업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자격소지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자격은 관리주체에 따라서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 민간자격, 국제공인자격 등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질 높은 수준의 자격으로, 주로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또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적용된다.

2. 자격기본법의 검토

우리 나라 자격에 관하여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률인 자격기본법은 1997년에 교육부의 제안에 의해 제정되었다. (자격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될 예정임) 이 법은 제1조 목적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 운영을 체계화 효율화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서는 자격을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운영 관리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누고 있는데, 국가자격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기준, 자격검정, 자격등록과 자격증 교부, 자격취득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기준은 대체로 자격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하며, 검정은 자격의 인정에 필요한 시험 등 평가의 과정을 의미한다. 검정의 결과, 자격의 취득 및 등록을 나타내는 증서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국가자격제도 실태

보육교사의 자격은 국가자격(국가 이외에 단체, 법인 및 개인이 민간자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사회교육원, 사내교육 등이 이에 해당됨) 자격은 수료증을 수여함으로써 생기게 되는데, 국가가 민간자격의 일부를 공인하여 공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자격은 크게 자격증 산업과 관련이 있는 각종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을 나타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각 주무부처별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으로 구분된다. 자격의 수를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으로 규정한 국가자격은 26개분야의 595개 종목이 있고, 그리고 개별법령에 의해서는 15개 분야에서 119개 직종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자격은 모두 중앙행정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자격은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이 27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국가자격이 15개이다.

국가자격에 대한 학력조건은 국가기술자격 595개 종목과 국가자격 81종목이 학력조건을 두지 않으나, 국가자격 중 21개 직종은 고졸 이상, 17개 직종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자격검정 응시에 학력조건을 두고 있다.

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 모두를 포함하여 697개의 자격종목 및 직종이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고 17개 직종은 자격시험을 치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교육과정의 이수만으로 자격을 주는 경우와 법정 자격조건 해당자로서 서류심사 등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자격의 등급은 자격의 국가기술자격을 모두 포함하여 약 87%가 등급을 두고 있고 나머지 13% 자격은 등급을 두고 있지 않다.

제2절 보육인력 자격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보육인력 관련 법체계

영유아보육법에 나타난 보육인력 관련 법 체계를 보면 제2조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교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9조 종사자 기준에서는 제1항에서 보육시설에 시설장과 보육교사,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전문)대졸자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 명시하였으며 고졸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였다. 끝으로 법 제9조 제3항에서 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 자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 제10조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정하고 있다. 제1항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를 대학이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법 제10조에 따라서 교육훈련의 대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제12~20조가 교육훈련 및 시설에 대한 사항임. 이중 제15조는 교육대상자 선정, 제16조는 교육훈련과목, 제17조에서 수료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조항은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 선전제한, 변경사항, 위탁공고, 실적보고,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임.)

이러한 영유아보육법을 자격기본법 및 개별 법령의 자격관리 법체계와 비교하여 볼 때 보육교사에 대한 기준만 법으로 정하여 있고, 점정절차와 방법, 국가의 공식적인 점정과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육교사를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육교사의 자격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이라는 조항으로 2급 보육교사 양성과정, 보수교육, 승급교육 등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서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재교육의 체계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보육인력 자격관리

가. 자격기준

1) 시설장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1가지로 매우 광범위하다.

물론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보육과는 거리가 있는 다양한 전문적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인력이 보육시설 시설장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즉, 제도적으로 시설장의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과거 보육계의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전문성을 희생시키고 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여 보육아동 40인 미만의 시설은 2급 보육교사가 아무런 보육경력이 없어도 시설장이 될 수 있는 데, 이것도 시설장의 전문성 확보의 불확실성이나 보육사업에의 진입과 퇴출의 용이성을 허용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표 1]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직 종	자 격 기 준
시 설 장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부에 석사 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양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 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정교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 고등학교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 과정을 마친 자

주: 제10항의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교육원을 의미함.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3

2) 보육교사 자격기준

가)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의 자격기준을 보면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에서 10개 이상의 과목을 필수 및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고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아 복지시설 등에서

4주 이상의 실습을 마쳤을 경우에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8년도 광의의 보육 관련학과와 졸업생 수는 모두 34,649명이고, 대다수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학, 유아교육학, 아동학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졸업자 수는 12,000명이 넘어서 1급 보육교사의 공급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데, 이는 포괄적인 인정학과와 교과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표2] 대학 보육관련학과 학과수, 입학 및 졸업자수 : 1997~98

학 과	1997				1998			
	학과명수	학과수	입학생	졸업생	학과명수	학과수	입학생	졸업생
관련학과	39(11)	493	40,538	27,910	66(13)	670	43,384	34,919
핵심학과	15(4)	145	15,902	11,057	20(4)	171	16,510	12,881

주: 1) 학과명수의 ()는 전문대보 앞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2) 핵심학과는 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 및 아동학과 관련학과임.

자료: 표갑수의 『보육인력의 수급적절성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 평가에 관한 연구」, 1998.

서문희 이상현 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 인정교과목

우선 인정 교과목은 산만하고 중복되어 있으며, 보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분류체계도 불합리하다.

보육교사 1급이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영유아 보육관련 10개 과목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이론 36과목 중 2과목, 영유아발달과 교육에 대한 47개 과목 중 3과목, 영유아 건강, 안전, 영양에 관한 41개 과목 중 3과목, 그리고 영유아 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 47개 과목 중 2개 과목으로, 총 165개 과목 중에서 10개 과목을 선택이나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면 된다. (이 교과목은 2차례 개정되었음. 1994년 1차 개정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정 시에는 영유아 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 42개 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필수나 선택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던 것을 42개 과목 중 가정학원론을 삭제하여 41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1996년 2차 개정 시에는 실습을 강화하여 영유아발달과 교육에 대한 48개 과목 중 현장실습을 삭제하고 그 대신에 보육시설, 유치원 및 관련 복지시설 등에서 4주간의 보육실습을 필수로 채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들 165개 과목 중 10개 교과목 이상 취득하면 자격이 주어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보육에 대한 이론 및 기술적 기초 관련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고도 주변 과목의 이수만으로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자부심을 갖는 데도 장애요인이 된다. 영유아보육에 대한 기초이론 영역을 보아도 교육사회철학과 현대교육사조를 이수하면 기초분야에 대한 의무 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이 되는데, 이들 학과목으로 보육 이론의 기초가 다져졌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한 교과목 명칭만으로는 교과목의 구체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분류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의 교과목이 명칭만 약간 다르게 한 영역 또는 서로 다른 영역에 중복되어 들어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기초이론 분야에 있는 아동미술, 아동음악과 운동, 창작 놀이지도 등의 교과목은 영유아 발달 및 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이고, 아동발달 및 교육 분야에 들어있는 식품학은 영양 안전 건강영역의 교과목이다. 또한 문제아동지도는 영유아발달과 교육영역에 중복되어 들어가 있고, 이와 유사한 아동행동연구는 영양 안전 건강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많은 불합리를 나타내고 있다.

(2) 인정학과

보육 관련학과 인정범위는 당초에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으로 12개 과목을 정하였으나, 여기에 보육학과가 추가되었다. 교과목이 처음으로 명시된 1992년도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을 보면 아동복지학과, 가정학과, 초등교육학과, 심리학과, 특수교육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사회사업학과, 가정교육학과, 가정관리학과는 교과 과목이 규정하고 있는 관련 교과목명과 다소 상이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한 경우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와 교과목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육학과 이외에 보육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는 12개학과 중에서 유아교육과, 아동복지과, 아동학과를 제외하고는 보육과는 관련성이 약한 학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이다. 9개학과는 가정관리학과 3개과, 사회복지 관련학과 2개과, 교육관련학과 2개과, 심리학과 및 간호학과로, 보육시설 확충기에는 보육학과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보육교사 공급을 위하여 가능한 많은 보육교사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 학과가 학문적 성격으로 보아 보육 및 교육에 전혀 관련 없는 학과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육 관련학과로 어느 정도 당위성을 가졌다. 그러나 보육학자가 생기고 보육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 영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들 학과의 교과목만으로는 보육 전문가로서의 이론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확실하여 지고 있다.

나)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인 보육교사교육원에서 1,000시간 이상의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당초 800시간이었으나 800시간으로는 보육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지적(정민자, 1995 이경호, 1992)에 따라서 1995년 5월 1,000시간으로 연장 조치하였음.) 1992년이래 1999년까지 10만명이 넘는 보육교사를 배출하였다.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생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장 또는 나중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겠다는 비율이 모두 81.8%이다. 특히 수료 후 바로 놀이방을 개원하겠다는 비율도 5.9%이다. 따라서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생의 약 20%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2급 보육교사의 실질적인 공급은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표3] 시설유형 및 시도별 보육교사교육원 졸업자수 (단위: 명)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총계
전 체	4,389	7,191	11,966	14,926	15,371	15,906	15,182	15,911	100,842
시설유형									
대학부설	1,724	4,285	5,220	7,242	7,733	8,171	7,972	8,969	51,316
민간운영	2,665	2,906	6,746	7,684	7,638	7,735	7,210	6,942	49,526

자료: 서문희 이상현 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그러나 보육교사 교육원 수료자에게는 2급을 부여하는 현행 자격인정제도는 이들 교육으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생 스스로도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9.4%에 불과하고, 교육원생 본인들 스스로가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8.4%에 달하고 있다.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환경, 적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시간

첫째로 교육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의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교육훈련기간이 9년부 터 연장되었지만 1년 동안에 800시간의 이론 및 실무교육과 200시간의 실습 이수 훈련기간과 훈련 시간수가 결코 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생들도 현실적으로 교육하기로 되어 있는 교과목을 완전히 습득하기에는 절대시간이 부족하거나, 교과목수가 많으며, 실기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 교육과목

둘째로, 교육과목이 부적절하다.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교과목은 37과목으로 1년 안에 교육하기에 너무 많다. 과목에 대한 시간 배정에 있어서도 이론 교육 시간의 비중이 크고 실무관련 시간의 비중이 적다. 총 1,000 시간 중 이론시간이 영유아보육이론, 아동복지일반이론으로 49%를 차지하는 반면에 실무 관련 교육시간은 30%로 비중이 적다.

또한 교과과정 구조를 살펴보면 영유아보육에 관한 기초이론은 특수교육론 장애아복지론, 유아교육론 유아 교육철학,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등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아동복지 일반이론은 사회복지학개론 사회 복지행정론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예절교육 가정과 사회 등으로 중복되어 있고 인력관리 과목이 아동복지 일반

이론에 들어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원에서는 교과목을 30과목 내외로 유사 과목을 통합하여 강의하고 있고 시간 배정도 실 기교육시간을 늘리고 이론 교육 시간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교육생에 대한 조사에서 72.9%가 교과과목의 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한 교과목 구성에서는 이론시간과 실기시간에 대해서는 이 론 시간은 많고 실기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실기교육의 비율을 크게 늘린 서울시의 교육원 교육생도 실기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한편 실습기간에 대하여 짧은 의견 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3) 교육환경의 부적절

반당 학생 규모를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반당 50~80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시 도에서 이에 따라 80명 선으로 감소시키고는 있으나 많다고 하겠다. 오전, 오후반 및 야간반의 운영도 질 높은 교육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보육교사교육원의 시설이나 설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보육실습을 위한 기자재나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설비 중 도서실 등의 활용성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생에 대한 조사에서는 교육생의 28.7%가 환경에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교육생의 적성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보육에 적성이 맞는 교육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원에 따라서는 입 학 희망자가 정원을 넘어서 별도의 입학시험을 실시하는 곳도 있으나 일부 교육원은 현재 정원이 비달되고 있어 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육생 희망에 의하여 신학순으로 입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이 적 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여 보육교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성 여부가 검증되는 것이 좋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교육원생들 스스로가 보육교사직이 적성에 맞다고 응답한 경유 가 72.2%이고, 그 외에는 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보육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교 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자격의 인정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비비는 사회적 비효율과 불합리는 물론 보육교사 개인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시설장에 대한 자격인정은 시설장 경력자는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으로, 신규 시설장은 개인적으로 다양 한 관련서류를 가지고 임면권자로부터 시설장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장은 시 군 구에 서,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은 설치권자가 임면권을 가지고 자격인정 기능을 하는 것이다. 보육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영유아보육사업안내를 보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유

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 및 이수 교과목과 학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보육교사 임용권자가 보육교사의 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므로 취업 시마다 매년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유사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도 개별 임면권자에게 매년 확인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의 비효율이 있다. 또한 임면권자의 개별적인 확인이 오차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보육교사 2급을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증이 자격증을 대신하고 있다.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인정을 과정별 총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하고 과목별 교육훈련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에 수료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획득을 의미하는 수료여부가 전적으로 보육교사교육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2급 자격유무에 대한 검증은 미흡하다.

다. 보육인력의 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대학(전문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정기적 보수교육과 승급을 위한 보수교육으로 구분되며, 신규 임용자는 임용된 해에 보수교육을 받고 그 이외의 기존 보육교사나 시설장은 매 3년마다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정기 보수교육은 시설장 40시간, 보육교사 20시간이고, 승급을 위한 보수교육시간은 20~40시간이다.

보수교육과정은 보육교사교육원의 양성교육과정 교육훈련과목 이수시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양성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훈련 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과목별 이수시간의 비율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법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안내에서도 정기적인 교육과 승급을 위한 교육을 모두 보수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어서 개념이 혼동되는 경향이고, 실제로 보육교사의 상당수가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보수교육과 승급교육 및 일반적인 특기교육 등 교육과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도적으로 보수교육이 승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보육교사 중 64.4%는 지난 3년간 보수교육을 받았고, 11.9%는 보수교육 대상이 아니며, 23.7%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미참가 이유 백분율 분포 (단위: %, 명)

이유	전체
시설에서 지지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를 맡아 줄 인력이 없어서	36.7
시설여건과 보수교육시기가 잘 맞지 않아서	32.1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너무 멀어서	1.7
있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서	4.2
보수교육 실시시기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서	14.2
별 필요를 못 느끼서	7.5
기타	3.8
계	100.0(240)

자료: 서문희 이상현 임유경, '보육서비스 질 향상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68.8%가 보육시설의 업무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고 교육을 받으러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대체인력이 없는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의 참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한편 교육실시시기에 대한 정보의 부재를 보수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로 든 응답자도 14.2%나 되었고, 교육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비율도 7.5%나 되어서 보수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

셋째로 교과목도 2급 보육교사 양성교육 교과목에 준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보수교육의 내용 중에서도 실기교육 내용을 보완하고 교육시간의 배정도 실기 위주로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보수교육 실시 규모 및 교육시간은 각 시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보수교육 시간이 40시간이며 이중 실기교육이 비중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도 불만족하다는 비율은 기타 지역보다 낮으나 여전히 실기교육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나타내었다.

넷째, 보수교육과정도 일반적으로 보육교사와 시설장 보수교육 그리고 방과후 보육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다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함으로써 보육교사가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교육 후에는 현장에서 바로 보육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3절 보육인력 자격관리 체계의 개선

1.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도입

자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 기술의 습득정도로서 직무수

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교육이란 보육교사 교육을 통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평가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육교사 자격체계의 개선은 우선 교육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를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보육교사를 배출 공급하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적절하고 효율적인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국가자격의 취득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격검정을 받으므로 개별 법령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을 효율적으로 검정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제도가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자의 두 가지가 자격획득과 관련성이 있다면, 보수교육은 보육교사가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질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 자격의 종류 및 기준

1) 자격의 종류

한편 보육교사의 종류를 현재와 같이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1급, 2급 및 준보육교사로 구분하고, 별도로 시설장 자격을 둔다.

또한 보육교사와 일부 중복자격으로 방과후 보육교사를 둔다.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나 초·중등학교 교사자격자 중에서 별도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방과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현재 방과후 아동 지도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방과후아동지도사라는 민간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의 대상아동이 12세까지로 확대된 만큼 방과후 교사에 대해서도 인위화된 국가자격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보육법 체계 안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 현실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서 모든 방과후 보육 및 교육 인력에 대하여 자격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와 초·중등교사 자격소지자 중에서 방과후보육 이수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함.

또한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지원 및 관리를 전제로 가정보육모⁸⁾ 가정보육모는 베이비시터와 유사하지만 베이비시터가 단순히 아이 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반면에 가정보육모는 전문성을 갖추고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인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제도를 도입한다. 통계청(1998) 통계에 의하면 미취학 아동의 0.9%인 38,600명의 취학 전 아동의 주 보육자가 파출부, 위탁모 등 비전문 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가정보육모 수요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정보육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시·군 구 보육정보센

터가 지원체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2) 자격의 기준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자격 기준 마련에는 학력 차이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가)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격획득에 있어서는 학력의 차이를 둔다. 먼저 전문대졸자와 대졸자를 구별하여 대졸자는 1급 보육교사, 전문대졸자는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준다.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에게는 준보육교사 자격을 주고 1년간의 경력을 쌓은 후 2급 보육교사가 되도록 한다.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가 2급 보육교사가 되는 데 1년, 2급 보육교사가 1급 보육교사로 승급하는 데는 2년이 소요된다. 이는 대졸자와 전문대졸자간의 2년, 전문대졸자와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간의 1년간의 학력 격차를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1급 보육교사가 시설장이 되는 데는 동일하게 3년의 경력을 조건으로 하였다. 1급 보육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학력 차이를 조정하였기 때문에 1급 보육교사에서 시설장으로의 승급에는 학력간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과정도 1급 보육교사의 자격획득을 위한 교과목의 수를 10개 과목에서 15개 과목으로 늘린다.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 교육시간도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고졸자는 실습 300시간을 포함하여 1,200시간, 대졸자는 실습 300시간을 포함하여 1,000시간을 이수한 자로 한다. 그러나 교육기간은 1년을 그대로 둔다.

방과후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나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소지자 중 150시간 정도의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현재 방과후아동지도사의 교육과정이 160시간임을 감안하였다.

한편 최근에 비인가 베이비시터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존 인력의 활용 및 서비스의 질 관리 차원에서 21~50세의 보육교사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1주일간의 단기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 후 각 시·군 구 보육정보센터에 등록을 함으로써 가정보육모 자격이 생기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5] 보육교사 자격기준(안)

구 분	자격기준
1급 보육교사	1. 4년제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5과목을 이수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급 자격 취득 후 영유아 보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승급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급 보육교사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15과목을 이수한 자 2. 준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준보육교사 자격취득 후 영유아 보육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준 보육교사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학력에 따라 다음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졸자는 강의 900시간, 실습 300시간 - 전문대 이상 학력자는 강의 700시간, 실습 300시간
방과후 보육교사	1.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소지자로서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시설장 자격기준

시설장의 자격기준을 (표 6)과 같이 개정한다. 먼저 어린이집 시설장은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자로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대학원에서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급 보육교사가 된 경우에는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대학원 졸업자 이외의 자의 학력의 차이는 1급 자격을 갖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의 차별화를 통하여 조정하였으므로 1급 보육교사에서 시설장이 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동일하게 한다. 그 이외에 어린이집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가정보육시설 시설장은 우선은 보육아동 15명 미만은 2급 보육교사 이상 자격 취득자로서 보육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보육아동 15명 이상인 놀이방 원장은 1급 보육교사 유자격자로 보육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및 어린이집 시설장 유자격자로 한다. 아동 15명 이상인 가정보육시설이 보육교사 실습생 교육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사가 1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표6] 시설장 자격 기준 개정(안)

구 분	시설장 자격기준
·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어린이집 시설장 또는 가정보육시설장 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어린이집 시설장	-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만 대학원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1급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놀이방 시설장	- (보육아동 15명 미만)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로 보육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보육아동 15명 이상) 1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로 보육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어린이집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

나. 자격검정 절차의 확립

1) 자격 검정

자격기본법 제10조에서는 국가자격 관리자는 자격여부를 평가하는 검정시행에 있어서 법령에 의하여 학점 등을 취득한 자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정과목의 전부 및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경우는 이 조항에 기초하여 자격검정은 정교사나 사서 등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교과목 이수를 통하여 면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육교사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학력 및 교과목 이수 관련 서류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은 국가자격으로 자격검정 업무는 국가에서 실시하고, 관리운영은 관련단체에 위탁한다.

한편 자격제도는 경과규정을 두어 법 실시 후 입학자부터는 새로이 마련되는 이수 교과목 기준에 따라 자격을 검정한다. 보육교사교육원 입학자도 법 개정후 입학자에 한하여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

2) 자격증 교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교사 관리제도는 법체계 상 자격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자격검정을 통한 자격 등록, 자격증 교부 등 제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자격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구체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평가 인정한 증명서인 자격증(Certificate)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할 만큼 자격제도 확립에 있어서 자격증의 교부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이 아니다. 따라서 자격제도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교부하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검정업무와 마찬가지로 자격증 교부업무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데, 여건이 성숙된다면 보육교사 단체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¹⁷⁾ 유사 자격발급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되 자격증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사회에서 위탁하고 있음. 사서 자격증은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도서관협회장이 자격증 교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간호조무사 자격업무는 각 시도 보건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가 많은 서울시 등에서는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서울지부에서 자격증 배부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음.

자격증 중 준보육교사의 자격증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수요증 수여 시에 배부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제도의 실시로 보육교사는 자신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보육업무에 임할 수 있으며, 또한 보육교사 취업시 보육교사와 임명권자 모두에게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다. 자격제도 도입 시행방안

개별 법에 의한 국가자격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에서 자격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보육교사의 자격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교사 검정의 기준, 방법, 절차를 명시하여 자격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격의 등록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보수교육에 대한 조항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자격의 취소나 관리운영의 위임 및 위탁 관련 조항도 필요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격제도 요건에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전면적인 법 개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이수 교과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시행규칙에 나타나 있으므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방과후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하는데, 이 교육과정을 보수교육으로 하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시간이 40시간 이하가 되어 적절하지 않고, 양성교육으로 하게 되면 시행령에서 양성교육은 교육시간을 1,00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지 않고는 또한 적절하지 않다.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과는 별도로 종사자 임용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8 보육시설운영에서 종사자 채용 시에 제한조건으로 전염성 질환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보

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이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법적 인격결함이 있는 자도 종사자로 임용되지 않도록 별표의 내용을 추가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를 별도의 시행규칙 조항으로 독립시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시설장 등 종사자 연령제한(정년) 문제도 법 조항에 포함하여 국공립은 물론 민간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제고 면에서 바람직하다.

2 보육교사 교육과정 개선방안

가. 대학(전문) 대학 교육의 정비

가) 필수 및 선택 과목

보육교사 자격 인정 교과목 개선은, 첫째로 교과목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둘째로 과목수를 현재 10개 과목에서 15개 과목으로 늘리며, 셋째로 보육실습시간을 늘린다는 방향에서 마련되었다.

보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학과 교과목을 바탕으로 1급 보육교사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의 이수해야 할 교과목으로 필수 6개 교과목을 정하고자 한다. 필수과목 6개 과목은 우선 과목영역을 영유아 관련 기초이론, 영유아발달과 교육, 영유아 영양 건강 안전, 부모참여와 지역사회연계를 주요 4가지 영역으로 설정하고, 영유아보육 기초이론에서 영유아보육론, 아동복지론, 영유아발달과 교육영역에서 영유아발달, 영유아보육과정, 영유아 건강 영양 안전, 그리고 부모참여 교육으로 한다.

선택 9과목은 기존 보육관련학과의 범주를 고려하여 영유아 보육기초이론 10개 과목 중 2개 과목, 영유아발달과 교육 17개 과목 중 3개 과목, 영유아 영양 건강 안전 영역 8개 과목 중 2개 과목, 부모참여 및 지역사회의 연계 관련 10개 과목 중 2개 과목으로 한다.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사회복지사업규칙에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20과목을 정해 놓고 4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며,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교과목으로 봄.) 현재와 같이 165개 교과목을 제시하여 관련학과의 교과목을 모두 수용하기보다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필수교과목을 제시하여 관련학과들이 필요에 따라서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과목명을 통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선택과목의 수도 앞으로 보육학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더 축소 조정될 여지가 있다.

[표기] 1급 보육교사 자격획득을 위한 교과목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필수	선택
영유아 보육기초 이론	(36과목 중 2과목)	영유아보육론 아동복지론	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평가론, 시설 운영과 관리, 유아교육철학, 유아교육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아동심리학, 상담심리학 (10과목 중 2과목)
영유아발달과 교육	(47과목 중 3과목)	영유아발달 영유아보육과정	영유아 교수방법, 영유아놀이, 영유아 사회생활, 영유아 언어생활, 영유아 탐구생활, 영유아음악 및 율동, 영유아 미술 및 공작, 교과교재연구,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방과후 아동지도, 영유아 상담과 지도, 심리검사(측정), 특수아의 이해와 지도, 영유아관찰, 아동행동연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교사회사업론 (17과목 중 3과목)
영양·건강·안전	(41과목 중 3과목)	아동건강·영양 안전	영유아 생활지도, 정신위생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의료복지론, 응급처치, 소아의학, 영양학, 아동간호학 (8과목 중 2과목)
영유아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 ^{*)}	(41과목 중 2과목)	부모참여 및 교육	부모·아동관계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가족치료, 가족자원관리, 가정생활교육론, 자원봉사론, 인간관계론, 지역사회관계론 (10과목 중 2과목)
실습	200시간	300시간	—
계	10과목	6과목	9과목

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4의 1임.

2) 개정안에서는 [영유아보육관련 기타 일반적인 이론]을 [부모 및 지역사회관련 이론]으로 변경함.

나) 관련학과 삭제

각 대학 관련학과의 교과목을 분석하여 보면 13개 보육 관련학과 중 보육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아동학과 이외의 학과는 보육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이 늘고 있고 학과간의 벽을 허무는 개방적인 정책과 함께 부전 공제도가 적극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소속된 학과에 관계없이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가능하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관련학과 조항을 없애야 한다. 소속된 학과에 관계없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를 위하여 정해진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마친 자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보육학과 졸업자는 모두 보육교사 자격자가 되겠고,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학생은 대체로 보육관련 교과목의 이수가능하겠다. 이외 학과는 교과목을 일부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시된 보육관련 교과목을 개설한다면 자격 획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대학원을 마친 자의 경우는 학부부터 연계하여 교과목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소속학과의 대학원 개설과목만으로는 요구되는 15과목을 이수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학부에서 보육과 관련 없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별도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 일찍부터 보육교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가 보육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학과 조항 삭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영아보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표현은 관련학과의 삭제라는 측면에서도 삭제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보육학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과 아동복지 관련학과'라는 표현은 보육학 및 보육의 위상 정립에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구체적인 관련학과는 법체계 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교과목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규정되고 있고, 단지 보육사업안내에서 보육교사 임면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학과보다는 이수 교과목을 중심으로 자격을 검증할 경우 보육사업안내에 관련학과명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나.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제도의 개선

1)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개선

가) 교육시간의 연장

문제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보육교사교육원의 1년간 1,000시간의 교육이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29.4%에 불과하고 나머지 70.6%의 교육생은 교육원 교육으로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실기교육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높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간은 교육생 학력에 따라 전문대 및 대학 졸업자는 현재 1년 1,000시간을 그대로 시행하고 고졸은 1,200시간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실습 경험이므로 실습기간을 현재의 200시간을 300시간으로 증가시킨다. 다만 실습기간은 종전대로 1달로 두고 증가된 100시간의 실습은 연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표8]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 시간 및 기간 개선안

현 재	개 정 안	
	고 졸 자	전문대 이상
- 강의 800시간 - 실습 200시간	- 강의 900시간 - 실습 300시간	- 강의 700시간 - 실습 300시간
총 1,000시간	총 1,200시간	총 1,000시간

그러나 교육기간은 1년을 그대로 둔다. 준보육교사의 제도 도입으로 2급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하므로 교육기간은 그대로 1년으로 두고자 한다. 다만 1년 동안에 고졸자반의 경우 1,2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기에 시간상 빠듯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2급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을 학력에 따라 구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1을 개정하여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7에 고졸자반과 전문대 이상 졸업자반으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시행 수 있다.

2) 교과목 수 및 시간배정 조정

현장실습 이외에 강의 시간 및 교과목을 (표 9, 10)과 같이 개선하고자 한다. 교과목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반과 고졸자반 교과목에 차이를 두지 않고 시간으로만 조정한다. 실무관련분야는 일정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문대졸자의 비중이 높게 되었다. 실습시간을 별도로 하고 현재에 비하여 영유아 보육 실무관련 분야의 비중을 크게 늘렸다.

교과목의 수를 현재 37개 교과목에서 25개 과목으로 축소 조정하고, 과목수의 축소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실무관련분야의 과목을 그대로 살려두되 영유아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및 아동복지 관련 일반이론 분야에서 중복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통합하였다.

[표9]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목수 및 시간배정 비율

(단위: %)

구 분	교 과 목		시 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 고졸	개정안 : 전문대이상
소양분야	2	1	5	5	5
영유아 보육에 관한 기초이론	10	6	30	30	25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무관련 분야	15	13	30	50	60
아동복지관련 일반이론	10	5	15	15	10
보육실습	-	-	20	별도	별도
계	37	25	100	100	100

[표10] 보육교사교육원 교육과목 개선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 정 안	비 고
사회사업가의 자세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		
유아교육론	아동교육론	
유아교육철학		
아동복지론	아동복지론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인복지론	특수아 교육 및 복지론	
특수교육학		
영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육과정	
영아기 발달		
유아기 발달	영유아발달	
아동기 발달		
음악 및 놀이지도	음악지도, 놀이지도	
동화 및 언어지도	동화 및 언어지도	
미술 및 공작지도	미술 및 공작지도	
사회지도	사회지도	
수학 과학지도	수학지도, 과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지도	
개발지도	아동문제 및 행동수정	
아동문제 및 행동수정		
보육프로그램 개발		삭제
영유아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영유아영양관리	
보육교제 및 교구개발	보육교제 및 교구개발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사회복지와 보육사업에 포함
영유아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영유아안전건강관리	
신무사례발표 및 토의실습		실습에 포함
영유아관찰 및 평가	영유아관찰 및 평가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사회복지와 보육사업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의 심리학적 기초	아동심리학개론	교육학개론은 일부 아동교육론 및 특수아 교육에서 다룸.
교육학개론		
인력관리		보육시설운영관리에 포함
사회복지행정론	영유아보육제도론	
자원봉사론	자원봉사론	
예절교육		사회지도에 포함
가정과 사회	가족상담과 치료	
가족상담과 치료		
37개 과목	25개 과목	

2) 보수교육제도의 개선

가) 보수교육제도 확립

보육교사가 계속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보수교육에 대한 개념 및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수교육제도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보수교육의 개념을 정립한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유지 관련 교육을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하고, 보수교육과 승급교육과 연계시킨다. 승급교육 신청 시에는 이수하여야 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승급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한다.

두 번째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화하여 매 2년마다 20~40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강화한다. 2년 동안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관리 업무 담당 기관에서 명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한다. 이는 자격증 제도가 확립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교육 시간 및 기간 개선안

교육	교육기간	개 설 반	비 고
보수교육	20~40시간	- 시설장: 어린이집시설장반, 놀이방시 설장반	- 관련학파가 있는 대학 및 시도 보 육정보센터서 실시
		- 보육교사: 0세아반, 1~2세아반, 3세 아반, 유아반, 가정보육반, 방과후반, 장애아반	- 특기교육 및 기타교육을 보수교육 으로 인정
승급교육	60시간 이상	- 시설장: 어린이집시설장반, 놀이방시 설장반 - 보육교사반	- 관련학파가 있는 대학

세 번째는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을 0세아반, 1~2세아반, 3세아반, 유아반, 가정보육반, 방과후반, 장애아반 등으로 다양화하고, 시도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이외에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의 교육훈련 기회를 보수교육으로 인정한다. 현재와 같이 시도 주관으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되 이 교육뿐 아니라 관련단체 및 학회, 보육정보센터, 평생교육시설 등에서도 세미나, 워크숍, 특기교육, 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시간을 마련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킨다.

넷째, 승급교육은 시간을 늘려서 60시간 이상으로 하고 주로 관련학파가 있는 대학에서 교육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시설장반과 놀이방 시설장반을 별도로 구분하여 시설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다섯째,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상 평일 및 주간에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한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교육방송, 사이버정보망을 통한 교육기회를 마련한다.

여섯째,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임시교사, 보조교사 및 자원봉사자 등 내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나) 재교육 교과목 개선

재교육 교과목 선정의 두 가지 원칙은 순수 보수교육과 승급교육의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는 점과 재교육 과정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육교사에 대한 조사결과 및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 특히 실무관련 교육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서 보수교육이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보육교사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교육은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보수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개선할 경우에 2년 전에 받은 교육을 올해에도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수교육 교과목은 이론보다는 실무위주로 구성하여 보육교사가 보육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던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유아반 중심의 보육교사 보수교육 교과목을 (표 1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보면 교과목은 이론 과목의 비중을 20%로 하고 그 이외는 모두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영유아보육의 실재가 40%이고, 영양 건강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가 각각 15%, 기타 10%로 구성하였다.

유아 담당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외의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이를 기준으로 하되 1세아 등 영아담당,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방과후 반 보육교사 보수교육 과정은 영유아보육의 실제 영역에서 보육내용에 따라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시설 시설장 보수교육은 시설운영 및 관리영역을 추가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야 한다.

한편 승급교육 과정은 보육인으로서의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는 교육과정으로 보육인으로서의 자세를 계다점하고 보육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충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1급 보육교사로 승급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2급 보육교사의 경우 부족한 이론적인 기초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과정과 비교하여 이론 분야의 교육시간을 약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시설장 승급교육은 조직의 운영자 및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차별성 있게 교과목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표12] 보육교사보수교육 교과목 구성(안) : 유아 담당* (단위: %)

구 분	교 과 목	비 율
기초소양론	영유아발달론, 보육(철학)론, 특수아보육론	20
영유아보육의 실제	영유아보육과정, 영유아보육프로그램, 영유아 심리와 치료, 영유아 언어생활, 영유아 사회생활, 영유아 탐구, 음률 신체표현, 미술표현, 놀이지도, 교수방법, 교육활동 평가	40
건강·영양·안전	영유아 건강생활지도, 영유아 안전지도, 영양과 단체급식관리	15
가족·지역사회연계	부모교육과 참여	15
기타	정보화 교육, 보육활동사례 등	10
계		100

주: 1) 유아반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며 개설하는 반에 따라서 영유아보육의 실제 부분에 변화를 줌

3) 방과후 보육교사 양성과정 신설

방과후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최고 40시간의 보수교육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15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시행령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양성과정교육을 1,000시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지 않고는 150시간을 양성교육과정으로 두기 어렵다.

유아교육법 제정에 관하여

이윤경 · 전회 공동대표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유아학교에 대한 각 단체와 관련 집단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와 입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아학교로의 일원화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공교육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능한지 등에 대해 여러가지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어 둘 수도 없지만 출발에서부터 많은 이견이 존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아이들을 상대로 시행착오를 시험해 볼 수는 더군다나 없는 것입니다. 영유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과정과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정책과 법이 결정된다면 시행과정에 오는 오류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유아에게 이 사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게 되길 바라며 유아교육법 제정에 관한 과정과 내용, 본 회의 입장을 싣으려 합니다.

1) 경과보고

- △ 2000. 5월 ~8월 "유아교육발전추진위" 발족 및 8차례 회의 개최
 - 「유아교육법」 제정 추진에 합의하여 법(안)을 마련 중.
 - 제8차 회의는 관계자와 함께 하는 확대회의 개최
- △ 2000.9월 제9~10차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회의
 - 확대회의 의견 중 운영시간, 운영일수 등에 대하여 보완대책 마련 및 유아교육법(위원회안) 구조 논의
- △ 2000.10월 시·도 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장학관 회의
 - 유아교육법 내용 설명 및 생점에 대한 보완대책 토의
- △ 2000년 10월 20일 제11차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회의
 -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위원회 「최종안」 마련

2) 추진일정

- △ 10월 교육부 장관 보고 - 유아학교종합발전 대책(유아교육법(안) 포함) 보고
- △ 11월 민주당에 법(안) 제출 -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된 유아교육법(안)을 민주당에 제출
- △ 12월 국회

3) 유아교육법안 주요 내용 발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히 교육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라 함은 만3세로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교육"이라 함은 유아에게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아학교"라 함은 유아의 교육과 보호를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유아를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5.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 보호과정을 말한다.
6. "시간연장제"라 함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 보호과정을 말한다.
7. "반일제"라 함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 보호과정을 말한다.

제3조(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

제2장 유아학교의 교직원

제13조(교직원의 구분) ① 유아학교에는 교원으로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아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아학교에는 속담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유아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유아를 교육·보호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유아를 교육·보호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유아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교육·보호한다.

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유아학교의 행정업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유아

학교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학교교원자격검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강사 등) ① 유아학교에는 교육과 보호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강사, 특수학교 교사, 명예교사 또는 시간제 교사 등을 두어 유아 교육·보호를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학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교직원의 임면) 국립유아학교의 교직원은 교육부장관이, 공립 유아학교의 교직원은 교육감이, 사립유아학교의 교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유아학교의 장이 임면한다.

제3장 유아학교의 운영

제18조(입학연령) 유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2조1항에 의한 유아로 한다.

제19조(학년도 등) ① 유아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 유아학교는 공휴일과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유아학교의 학기, 휴업일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일제 운영 등) ① 유아학교는 종일제로 운영하되,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일제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 및 다양한 보호과정 등) ① 유아학교는 교육과정 및 다양한 보호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보호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유아학교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유아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예·체능 및 인성 발달을 위한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비용

제25조(무상교육·보호)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과 보호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아학교 교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아학교를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무상교육·보호대상 유아의 보호자는 국·공립 또는 사립유아학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④ 무상교육·보호에 관한 지원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구비하여 유아학교로의 전환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학교로 본다.

제3조(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구비하여 유아학교로의 전환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아학교로 본다.

제4조(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육시설이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학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의 장 또는 교사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1 또는 동조제2항 별표2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자격연수와 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학교로 전환된 영유아보육법상의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는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 별표1 또는 동조제2항 별표2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자격연수와 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연수와 정을 이수하지 못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아학교 교원의 임용을 취소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아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유아학교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표1] 교장·교감자격기준(제15조제1항관련)

자격	학교	자격 기준
교 장		1. 유아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교 감		1. 유아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아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 및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비고: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표2] 교사자격기준(제15조제2항관련)

자격	학교	자격 기준
정교사 (1급)		1. 유아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아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아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유아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과과 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아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준교사		3. 유아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유아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비고: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 연수로 볼 수 있다.

4) 유아교육법(안) 제정에 관한 우리 회의 입장

1. 유아교육의 공교육은 유아학교라는 단일 모델을 통해서만 가능한가의 점이다.

공교육의 실현이란 다양한 보육/교육 방식에 국가가 얼마만큼의 공적 재원을 부여하여 양질의 내용으로, 모든 아동에게 균등하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획일화한 유아학교라는 단일모델로써가 아니라 기관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 속에서 비용보조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아교육발전추진위(이하 추진위)에서 제시한 유아학교의 설립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으로 다양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획기적인 예산확보가 따르지 않는다면 기존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나타나는 높은 민간의존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 우려되며 그럴 경우 공교육의 실현이 구호로만 끝날 위험이 높다. 진정한 공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통합이전에 민간/사립의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현재 영유아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학전 1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더욱 강화하고 대상을 확대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복지 및 가족 복지적 관점에서 유아학교가 그기능을 담보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보육시설은 아동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복지 및 가족복지적 관점에서 유치원과는 다른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아동에게는 사회, 심리적발달을 도모하고 취업여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가족기능의 저하로 인한 가족문제까지 함께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추진위가 내놓은 발전안의 내용을 한가지만 살펴보면 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여 방학기간동안 운영을 하고 이 때는 담임교사가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보육서비스의 복지적 성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측면보다는 기존 학교의 운영방식을 유아교육기관에 그대로 대입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영유아의 발달을 돕고 가족에 대한 보충적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적 서비스의 강화가 오히려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보육사업은 양적확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기 때문에 보육시설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이제 보육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보육사업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때이다.

3. 유아학교체제가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의 유아학교와 관련한 논의속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전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된 점을 받아들여 현행 학교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수의 보육시설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유아학교를 추진한다는 명분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다. 한 예로 추진위의 발전안에 따르면 학급 편제에 있어서 종일제의 경우는 20명 이하로 하고 연장제, 반일제의 경우 4~5세는 30명, 3세아의 경우는 20명 이하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교사대 아동비율로 질 높은 교육을 한다는 것

은 무리이다. 특히 연장제의 경우 8시간을 교사 1인이 30명의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현재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보다도 높은 상황으로 유아학교체제가 과연 질에 대한 고민 속에 제안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4. 이원화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부처간의 협의단위가 만들어져야 한다.

유아학교로의 일원화를 주장하는 논거 중 하나로 예산의 중복 투자에 따른 낭비를 지적하였는데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중복 투자 등 예산의 낭비 문제는 교육부와 복지부간의 의견 조율과 공동개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부처간의 협의단위를 만들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5. 유아교육법(안)이 통과될 경우 영아보육의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민간의존도가 높은 보육현실은 영아보육의 비수익성으로 인하여 영아보육이 기피되고 있는 현실이다. 보육시설이 0-2세까지의 영아만을 담당하게 된다면 거의 전적으로 공보육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심각한 영아보육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영아보육의 전면적인 공보육화는 예산의 확보등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실행방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본다.

6. 교육과 보호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문제이다.

교육과 보호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양성과정자체가 달라 마치 유치원에서는 교육기능이, 보육시설에서는 보호기능만이 필요한 것처럼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있어왔다. 그러나 아동의 입장에서 볼 때 양자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특히나 동일 기관에서 교육은 유치원 교사가, 보호는 보육교사가 하는 식의 기능적 분리가 일어날까 우려된다. 양성과정과 교과과정 자체가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나뉘어 배출된 현재의 교사들이 당장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인다. 기관의 일원화 이전에 교사양성과정의 상호호환성의 보장, 교과과정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의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학교 모델로의 일원화를 반대한다.

둘째,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취학전 1년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이 농어촌 지역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셋째, 우선 보육시설과 유치원 두 기관들의 높은 민간/사립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성을 확대하여 양 기관의 질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양 기관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및 관련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기구를 구성하여 교육·복지가 균형있게 고려되는 유아교육/보육의 제도변혁을 위한 연구와 정책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교구·교재 개발의 중복 투자, 일부 지역의 시설 과다 등으로 야기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협의 기구, 또는 조정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기선미 ·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간사,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1.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위기의 칼바람은 우리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다. 평생고용, 완전고용이라는 말은 어느새 전설처럼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정함속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 그리고 무한경쟁의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왜 우리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사실 우리 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는 외환보유고의 하락이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야기시킨 걸까? 최근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여러 방식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진보적 학자와 사회운동권은 최근의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이제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함께 맞서 싸워야 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먼저,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상을 살펴보자. 신자유주의의 핵심사상은 시장과 자유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쩌면 자본주의의 속성이라 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에서도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 측면에선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기본 속성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며 굳이 다른 사상이나 체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른 한 편에서는 신자유주의는 그동안 국가 개입을 통한 시장 조절을 주장했던 케인즈주의와는 다른 단계의 자본주의 정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술적인 논쟁이야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필자의 생각은 일단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을 잡아내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후자의 입장을 택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한다. 분명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 발전단계나 정책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필자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차별성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2. 신자유주의의 형성과정과 특징

흔히, 신자유주의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구별하고자 한다. 우선, 케인즈

주의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케인즈주의의 1929년 시작된 세계공황 상황에서 자본주의를 구원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등장하였다. 케인즈주의의 핵심은 국가의 경제개입을 통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소화해 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수요를 증가시켜 완전고용정책을 실시하고 누진세와 같은 조세정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복지국가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케인즈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완화시켜 자본주의의 생존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자본주의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수정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케인즈주의는 사회주의라는 건재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보완책으로 선택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와 함께 또 한번의 세계적 공황이 시작되게 되는데, 발빠른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이를 케인즈적 복지국가 모델이 불러온 재앙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현대의 구조공황은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과 관료주의, 복지정책의 남용의 결과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결국 이들의 주장은 케인즈주의 이전 단계인 자유주의로의 회귀였다. 그러나 이들이 외치는 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즉 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 자체를 부정하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경쟁이 시장경쟁의 조건 자체를 파괴하는 부정적 경향이 있으므로(독점화 경향과 노사분규와 같은 계급대립현상) 국가가 이 경향을 차단하는 정책으로써 시장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시장경쟁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국가가 정책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 개입이란 경쟁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입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개입은 시장에서 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모든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자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이다.

현실적으로 이는 '민영화' '규제철폐' '개방화' '자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비용축소' 등의 정책으로 나타난다. 최근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맥락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수입자유화·개방화 정책, 파견근로제도 도입과 최근의 기간제 근로 허용기간 확대(자란 9월 경제조정정책회의에서는 현재 1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임시직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기업이 임시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를 통한 노동시장유연화 정책, 인력감축위주의 구조조정, 각종 규제철폐 등의 조치를 떠올려보자. 97년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은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에 의해 이루어졌다. 부실은행과 부실기업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명단에 의해 피출되었다.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뉴브릿지에 6천5백억원의 할값으로 해외매각한 주체도 '정부'였다. 결국 정부는 앞장서서 IMF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김대중 정권을 신자유주의 정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 칭하는 것이다.

사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본격적인 시작은 김영삼 정권이라 할 수 있다. 신경제정책, 신교육정책, 신사회복지정책, 신노사관계정책, 신재벌정책 등에서 '新'의 내용은 다름아닌 신자유주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아마 기억할 것이다. 갑자기 세계화라는 이름이 망령처럼 떠돌고 세계화라는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를 쓰고 영어를 배우려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당시 좀더 넓은 세계를 꿈꿨던 젊은이들에게 세계화는 어쩌면 설레임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세계화의 방향이 다름아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였으며, 그 결과는 경제적

종속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불과 최근 몇 년사이였다. 그러면, 이러한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세계화라는 미명아래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이식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자.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과정

언제부터인가 주식투자는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기 시작했다. 단지 내가 주식투자에 뛰어들지 않는다 해도 주식이 몇 포인트 올랐는지 내렸는지 하는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인양 인식되기 시작했다. 필자가 '왜 갑자기 주식이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라고 느낀 건 아마 97년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IMF경제위기 전후로, 노동법 날치기 통과가 있었고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있었다. 경제위기로 나라가 온통 속대밭이 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주식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외친 것이 외국 주주들을 불안에 빠뜨렸고 결국 이들의 팔자주머니 주식시장을 얼어붙게 한 것이었다. 결국 모든 책임은 거리로 뛰쳐나왔던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려졌다. 그때의 느낌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 '이젠 마음대로 데모조차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구나'라는...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왜 외국자본이 주식을 통해 국내 경제를 통제하며 이를 통해 정당한 정치적 행동조차 간접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돈도 아닌 외환의 보유고가 적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IMF가 우리 경제를 통제하는 일이 왜 가능한 것일까?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1970년대 이래 세계 경제는 생산과 무역보다는 화폐의 흐름에 의해 추동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고정환율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이 한 몫을 하게 된다. 2차세계 대전 이후에 설립되어 1970년대 초까지 브렌트유즈 협정에 의해 유지된 고정환율제 하에서는 자본의 국제 흐름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투자자가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을 쉽게 살 수 없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이용 가능한 외국 자본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공식적인 재원이 대부분이었다. 천연자원의 개발을 제외한다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매우 적었고 상업적인 대출이나 증권 투자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고정환율제를 지탱해주던 미국이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면서 1973년 각국 화폐를 달러에 연계시켰던 고정환율제가 파산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기치면서 성장한 국제 금융업의 압력속에서 안정적인 환율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고정환율제가 와해되자 선진국들은 국제 금융사업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면서 자본통제를 풀기 시작했다. 결국 금융자본은 국가 화폐 간의 환율과 이자율 격차를 활용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다. 그 결과 1970년대 중반이 되면서 해외 화폐시장에서 이루어진 화폐 거래량이 세계무역의 총가치를 초과하게 된다. 특히 급속하게 발전한 정보 및 통신 기술 덕분에 화폐는 간단한 컴퓨터 키조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금융자본은 각종 국제 협약을 통해 금융규제 철폐, 금융자유화 등을 이룩하여 각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후 각국 경제에 투자를 이용하여 개입하기 시작한다. (1971년 국제 금융거래의 90%는

무역이나 장기투자 같은 실질경제와 관련되었고, 투기자본은 1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 그 비율은 완전히 뒤집혀 95년경에는 막대한 자금의 95%가 투기성 자본이 되었다. 변동환율제로의 전환과 함께 1973-74년의 유가폭등은 초국적 자본이 형성되게 한 또 하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가폭등 시기에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산유국은 여유자금을 서방은행에 보관하기를 선호했고, 서방은행은 이자금의 투자 출구를 찾아야 했다. 바로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투자를 원할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IMF(국제화폐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이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은 돈에 목말라하던 제 3세계 국가에 먼저 투자를 확대하였다. 멕시코 등의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여러나라가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 초국적 자본은 처음에 값싼 이자로 대출을 시작했고, 대출의 조건으로 경제적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제 3세계의 여러나라가 초국적 자본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경제개발정책을 펼쳤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 경문제나 고임금, 저이윤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경공업, 중공업 등의 산업이 남미나 아시아 국가에 이전되었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녔던 아프리카는 커피나 옥수수, 담배 등 선진국의 기초식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다. 이들 초국적 자본은 대출 조건을 점차 까다롭게 변화시키고 이자를 또한 엄청나게 높이기 시작했다. 대출을 받은 국가들이 낸 이자의 총량은 이미 원금보다 높아진지 오래이다. 더구나 초국적 자본의 상업작물 전략을 따랐던 아프리카는 외국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경제가 함께 뒤흔들리는 불안한 경제체제에 놓이게 되었다. 쌀이나 밀과 같은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업작물 가격의 하락은 곧바로 기아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최근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경제위기는 바로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 전략, 구체적으로 시장자본의 극대화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 또한 국민의 무분별한 소비로 인해 서가 아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산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IMF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제개혁은 바로 인력감축중심의 구조조정, 복지비용의 축소, 부실기업의 해외매각,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무역 및 외환 자유화, 식량 등 기초적인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고용비용, 정부 비용 줄이고, 자국 살림살이를 팔아서 달러 마련하고, 집안 문 활짝 열어 외국 장사치가 들어오기 편하도록 만들라는 이야기이다. 현재 김대중 정권은 심지어 통신과 전략과 같은 국가적 산업조차 효율성 증대라는 미명아래 민영화,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노동자, 서민 특히 여성의 송통을 조이는 과정임은 명백하다. 이런 식의 경제개혁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은 헐값으로 우리 기업을 사들이고 저렴한 고용비용으로 초과이윤을 얻어가게 될 것이다. 심지어 전력, 통신 등의 국가 산업조차 해외매각된다면 우리의 송통을 초국적 자본의 손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우리는 달러를 얻음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송두리채 팔려나가는 것이다. 결국 그 달러조차도 노동자, 서민의 손에는 쥐어지지 않는다.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여성에게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여성이다. 인력중심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들은 고용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가계보조자라는 이유로 제일 먼저 해고되었다.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나선 여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임시, 파견, 용역, 단시간 근로 등 이름도 다양한 비정규직이었다. 2000년 4월 통계에 의하면 여성노동자의 70.5%가 임시·일용직이다. 통계상으론 잡히지 않는 파견이나 용역 등을 합친다면 여성노동자의 거의 90% 정도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다. 결국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이며, 고용비용 집감을 통한 이윤축적을 가능케 하는 것 또한 여성이라는 말이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전체 가구중 16.5%를 차지하는 여성가구들은 절대적 빈곤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태경(1998)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가구의 절반 정도가 1인당 평균소득의 3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95년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시행한 조사에서 빈곤 인구의 거의 2/3가 여성이며, 빈곤한 노령인구 중에 4/5가 여성이라는 점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IMF이후 이수치가 더욱 늘어났을 것이라는 점은 분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서구에서도 '빈곤의 여성화'라는 용어가 채택될 정도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의 빈곤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 중 하나인 복지비용의 감소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이다. 현재 가정내에서 보살핌과 돌봄을 담당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약화된다면 여성은 가정내에서 보살핌과 돌봄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노동강도를 크게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남편의 실업으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해지고 가족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여성에 대한 가정내 폭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여성이다. 여성은 저임금으로 고용비용을 줄여주고 있으며 가정내 보살핌 노동을 무급으로 담당함으로써 복지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가정으로 넘겨진 모든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는 것도 여성이다. 신자유주의는 여성의 노동과 헌신을 딛고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앤 엘슨과 같은 여성학자들은 신자유주의의 가부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에게 안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매일 뉴스를 통해 소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 속에 어떠한 의도가 숨어있는지, 그러한 정책이 우리나라에,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인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해어나올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그물에 걸리고 말 것이다.

그럼,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공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가능할까? 한번, 그 묘안을 생각해보자

5.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신자유주의라는 끌리웃에 대항하고자 하는 다윗의 싸움은 이미 시작된지 오래이다. 우리보다 먼저 IMF의 공격을 당했던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등의 국가에서는 민중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였다. 브라질의 땅없는 농업노동자들의 운동(엠에스메 MST), 멕시코의 '사빠띠스파 민족해방군' 운동 등은 IMF가 만들어 놓은 빈익빈부익부 사회를 민중의 힘으로 개혁하기 위한 외로운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국적 차원의 운동은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그야말로 세계화되면서 국제연대투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제3세계 외채탕감운동을 주도하는 '쥬빌리 2000' 운동, 99년 11월의 시애틀투쟁, 2000년 4월 프라하 투쟁 등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세계 곳곳의 목소리가 이제 모여지고 있다. 돈을 내세워 신자유주의를 무차별적으로 이식시키려는 IMF와 IBRD, 세계무역자유화라는 미명아래 선진자본국의 시장을 넓히려는 WTO가 바로 이들 운동의 주 대상이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입은 우리의 경우도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99년 5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을 구성하였고, 각 시민사회단체 내에서도 신자유주의 반대가 공통의 과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경우 2000년을 빈곤과 폭력추방의 해로 선포한 바 있고, 여성에 대한 빈곤과 폭력을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2000년의 주요 사업기조로 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빈곤과 폭력 추방을 위한 세계 여성대행진 한국대회'를 개최하였다. 캐나다 퀘벡여성들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빈곤과 폭력추방을 위한 세계 여성대행진'은 전세계 162개국 여성들이 참여하여 각 국별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각국의 대표들이 뉴욕과 워싱턴의 IMF와 세계은행사무소에 모여 항의 시위를 전개하고 IMF 소장과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제, 여성들이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하던 여성들이 이제 그 역할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 세계은행, IBRD의 해체를 불러오기에는 크게 역부족임은 틀림없다. 어쩌면 이러한 기구들은 우리가 무너뜨리기엔 너무나 거대한 대상인지 모른다.

최근 필자는 '신자유주의와 여성노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다. '과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거스를 수 있는가? 이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대세가 되어버렸고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럴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미 일국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국제 연대를 통해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보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속도와 힘이 더욱 센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는 다시 되묻고 싶다. '그러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이대로 패배할 것인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암울한 세상을 이대로 물려줄 것인가?' 너무나 어려운 싸움일테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진을 멈출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우리에게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만이 있을 뿐 반대를 넘어선 저항

점을 제시하는 대안이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세계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답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생산노동과 보살핌 돌봄 노동이 모두 인정받는 사회, 생태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회, 사회전체가 보살핌과 돌봄이 주요 원리가 되는 사회! 이는 필자가 꿈꾸는 대안사회의 모습이다. 필자는 이를 여성해방론적 생태사회주의(Feminist ecosocialism)라 명명한다. 새로운 세계화란 이러한 사회원리에 부합하도록 각 국의 사회복지제도, 고용제도, 생산체계 등을 균등화하는 것이다. 물론, 필자의 대안사회의 상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다. 그러나 아무리 현재 추상적 차원에 머물더라도 우리의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적 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다듬어내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 답문으로, 대안적 운동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구호만 가지고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위력을 너무나 과도 평가할 필요도 없다. 사실 신자유주의는 그 자체가 붕괴를 조장하는 자체 모순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끊임없는 시장화대안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 중산층이 붕괴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구매력을 지닌 소비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 신자유주의가 새롭게 공략할 땅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 케인즈주의가 자본주의 발달단계에 따라 붕괴했듯이, 신자유주의 또한 자체 모순과 자본주의의 발달단계에 따라 붕괴할 수밖에 없는 유한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 붕괴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하느냐는 사회운동의 몫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경험으로 그리고 여성의 힘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고 대안적 세계화에 대한 논의를 개발하고 운동화하기 위해 내내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참여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친다.

일본의 보육과 보육제도

枝本信一郎 에다모토 신이치로 · 장애원 원장

번역: 오세근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래의 글은 지난 10월 25일 광주에서
한일보육교류협의회의 주최로 실시한 한일보육교류 심포지움의 발제 내용입니다.

1. 시작하는 말

ㄱ. 처음에

① 이 보고는 일본측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것임

방금 소개받은 에다모토 신이치로입니다. 오오사카 북부에 있는 장애원이라는 보육시설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받은 주제는 일본의 보육과 보육제도 상황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었습니만, 전문적 연구자가 아닌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객관적인 보고를 한다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일입니다.

따라서, 장애원이라는 보육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지금껏 경험해온 사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② 드리는 말씀의 순서에 대해

우선, 저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장애원의 연혁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보육상황 변화와 보육시설의 역할,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입장의 변천을 네 시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시기구분은 [오오사카 시립대학의 야마가타 교수와 [분쿄우 대학의 사쿠라이 교수에 의존하는 바 크지만, 약간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장애아동보육 및 교육체제 형성 과정을 권리획득 운동과 장애인의 정상화라는 세계적 흐름과 연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보육교류를 통해 배운 사실과 문제제기에 바탕 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ㄴ. 장애아동 통합보육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음

① 교회부설 유치원으로 1953년 개설

우선 보육시설 장애원은 오오사카 아와지(淡路)교회 부설 유치원으로 1953년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종사하게 된 1968년 당시는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유치원으로 불렸습니다. 지역의 엘리트 유치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함께 온 성지문 보육원이나 성화보육원은 저희보다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② 60년대 말 반체제 운동의 고양기로부터 70년대의 인권운동으로

한국의 경험도 비슷합니다만, 1960년대 말은 세계적인 반체제 운동의 고양기였고, 일본에서는 베트남전쟁운동을 중심으로 상당한 사회 층이 이에 가담했습니다.

이기에 제국주의 본국의 국민이라는 자기존재에 대한 물음, 즉 제국주의 피해국의 국민의 희생에 근거한 존재양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컨대,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대를 소리높이하면서도 베트남독수의 이윤에 의해 생활해나가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197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반체제 운동은 일단 정체되지만, 대신에 인권운동 혹은 차별 받는 소수자의 인권회복운동의 형태로 승화, 계승됩니다. 이런 사실은 저희 교회 역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즉,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세 개의 차별부탁 문제에 대해서조차 눈감아왔던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③ 1972년 최초로 장애아동을 받아들이고, 1975년 보육시설로 개편

장애원은 1972년 9월 2명의 장애아동을 최초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때, 부락과 제일 한국인의 차별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던 때 이었는데, 2명의 장애아동 어머니가 장애원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직원들 사이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결국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 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1975년 4월 장애원은 보육시설로 재출발합니다.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보육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보다 열악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에 전념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수의 유치원이라는 명성을 포기하고 보육시설로 재편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장애아동보육을 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④ 장애아동 통합보육이야말로 진정한 보육이다.

1977년 장애아동 통합보육이 진정한 보육이라는 슬로건이 직원들 사이에서 논의됩니다.

보육시설은 아동에 있어서 하나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을 배제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거짓된 사회상을 가르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진정한 보육이라 할 수 없으며,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보육이 진정한 보육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후 장애원의 보육은 이 슬로건의 내실을 채우는 것이었으며, 장애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보육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슬로건은 상당히 돌발적인 것이었음에도, 이후 장애원의 보육의 방향을 규정합니다.

2. 보육시설의 역할 및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입장의 변화

ㄱ. 보육시설 제1기 - 빈곤대책으로서의 보육시설제도 마련

① 1947년 아동복지법제정에 의해 보육시설이 제도화됨

그럼 이제부터 일본의 보육을 둘러싼 상황 변화와 보육관의 변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보육시설은 1947년 아동복지법 제정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전에도 인보관활동(새틀먼트)에 의한 탁아소가 있었지만,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보육제도는 빈곤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루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어머니를 위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요.

②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조치비]로 각 보육시설에 지급됨

보육소제도는 보육에 필요한 비용이 조치비에 의해 각 보육소에 지급됩니다.

공립보육소이든 사립보육소이든 자금운영의 원칙은 [공영]이기 때문에, 연령별 보육아동의 숫자에 따라 지불되는 조치비용에 의해 운영되지요. 조치제도는 행정권의 행사로서, 보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키고, 그 아동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③ 보육시설이 조치 제도 하에서 제도화됨

조치 제도 하에서 보육제도 실시는 보육시설운영을 안정시키고, 양적 확충을 가져오는 물질적 기반이 됩니다.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그 운영에 골머리 아프지 않으면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었고, 보육내용을 연구함으로써 유치원교육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ㄴ. 보육시설 제2기 - 여성노동력 확보를 위해

① 1950년대 후반부터 경제의 고도성장기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일본은 고도성장기에 들어섭니다. 이 고도성장의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한국전쟁이 있었지요.

이 고도성장기에는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어, 가정주부가 대량으로 노동시장에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1생계를 위해 빈곤층 여성이 주류를 이룹니다. 다음 시기에 들어서는, 빈곤층 여성은 물론이지만 오히려 보다 풍요롭게 위해 중산층 여성까지 나서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농촌지역 노동력이 도시지역으로 집중하는 결과, [과소해와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도시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놀이공간이었던 빈터가 없어지는 등 아이들 양육 환경의 변화가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인식되게 된 때는 제4기에 들어서입니다.

② 노동조합 부인회의 [우체통과 같은 숫자의 보육시설]확충 요구

여성이 일을 갖게 됨에 따라, 아이들 보육이 당연히 커다란 과제로 등장합니다. 노동조합 연합체인 총평의 부인회는 [우체통과 같은 숫자의 보육시설을]이라는 슬로건의 보육시설 확충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런 요구는 여성노동력을 확보하라는 일본 정부의 의도와 일치하여 공립, 사립의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지고, 현재 전국 2만 3천여개소에 이르는 보육시설의 대부분은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③ 저임금여성노동력 확보가 목적이었음

이 시기 여성노동력이 갖는 의미는 어디까지나 보조노동의 의미였습니다. 주부의 입장에서 실재 남편의 소득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활비를 좀더 풍족하게 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지요.

따라서, 이들 여성노동력은 긴 시간 일할 필요가 없었고, 보육시설 역시도 8시간 - 10시간 보육이면 충분한 시기였기에, 그 이상의 장시간 보육은 잘못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젖먹이를 둔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새 살미만의 아이를 보육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조차도 있었습니다.

ㄷ. 보육시설 제3기 - 여성의 자기실현을 위한 취업지원

① 1980년 전후 시기의 여성 취업형태의 다양화

이 시기 여성의 취업의식은 크게 변화합니다. 여기에는 1970년대의 권리획득 및 권리옹호 운동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일 한국인의 영주권획득 운동도 이런 운동의 일환이었고, 여성의 권리 획득 운동 역시 예외는 아니며, 이런 가운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에 눈뜨기 시작한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더 이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위화감이 없어지고, 취업이 단지 가정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을 넘어서 자기실현의 수단이 되게 됩니다.

② 자기실현을 위해 근로하는 어머니들은

자기실현의 수단으로서 일을 계속하려는 여성은 이제 여자가 아니라, 혹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등을 이유로 회사일을 중단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보육시설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육시간의 연장이나 영아보육의 충실히 요구되어, 영아보육제도, 야간보육제도, 연장보육제도가 이 시기에 실시됩니다.

ㄹ. 보육시설 제4기 - 지역사회의 아동양육 지원의 과제

① 1990년대 들어 아동양육은 지역사회의 과제로 됨

제2기 들어실 무렵부터 핵가족화, 낮은 출산율이 진행되어 영유아의 양육에 고민하는 새로운 세대를 등장시킵니다. 더욱이, 핵가족화에 따라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가까이 살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저출산율이 일반화됨에 따라 근처의 아이 키우는 집이 줄어들어 아이양육시 상담과 조언을 받을 있는 기회도 크게 줄어듭니다.

집에 어머니가 있는 가정, 이른바 전업주부가정의 아동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 이 시기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같은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깨뜨리고, 지역사회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보육시설의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점차 나타납니다.

② 저출산 대책으로서 보육제도

이 제4기의 행정부문의 주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은 제3기에서 설명한 바처럼, 여성의 자기실현을 위한 취업증가에 따른 미혼여성의 증가이지요.

따라서, 이 시기 정부는 영유아보육, 연장보육 등 이른바 특별보육을 빠르게 늘려나갑니다. 특히, 제3기 특별보육대책은 문제발생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형태였으나, 이 시기에는 국가적 정책으로서 충실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 특징입니다.

③ 지역공동체의 아동양육환경체제 붕괴

그런데, 지역사회의 아동양육 지원체제 마련에 나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동양육의 환경인 지역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었다는 사실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역공동체의 붕괴라는 사실은 지역사회의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크게 한다는 점이지요.

이 같은 현실에 근거해, 우선은 사후약방문격이긴 하지만, 개별 보육시설의 노력은 물론, 지역공동체를 재생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력의 정체성을 증시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밀착한 보육운동을 전개해온 한국에서 배우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ㄹ. 아동복지법 개정과 사회복지기초 구조개혁

① 제3기, 제4기 변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보육제도

지금까지 일본의 아동보육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일본에서 아동복지법개정 및 최근 사회복지개혁의 움직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대해서 입니만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 개정의 주요한 배경에는 제3기와 제4기의 사회변화에 보육시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② 공권력의 행사인 [조치제도]의 한계

조치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보호자 및 보육시설의 의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권력의 행사에 의해 아동을 보육시설에 입소시키고, 그에 대해 일정수준의 그리고 일률적인 보육을 보장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육시설에 조치비용으로서 지급하는 제도임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제3기 이후 한계를 드러냅니다.

우선, 개별 보육현장에서는 보호자와 보육종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보육한다는 사실이 확산되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좁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개별적 보육요구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각 보육시설에서 거의 비슷한 보육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조치제도상의 보육제도는 한계를 갖습니다.

③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던 아동복지법 개정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 조치비로서 지급되던 보육시설 운영비용이 [보육소운영비]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며
- 원칙적으로는 보호자가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자유를 강조함에도,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입소를 알선하고 조정하게끔 되어 있어 사실상 행정기관의 입소결정이라는 양식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에 큰 변화는 없지만 제한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보육시설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보육내용을 결정하고, 보호자는 보육시설을 선택하며, 보육시설은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보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행정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지요.

④ 자립과 자기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목표로하는 구조개혁

금년 5월에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명칭 변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시설이 복지의 중추를 이루던 것을 지역복지와 재택복지

등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욕구에 다양한 형태의 복지지원을 해나간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복지제도 이용에서 변화가 있는 바, 종래의 [조치제도]를 대신해 [계약제]가 도입된 것이 특징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되어 계약형으로 이행하였습니다. 보육제도에서도 미비하나마, 계약형에 가까운 제도가 도입되고, 장애아동시설을 포함한 많은 시설이 2003년경에는 전면적으로 계약형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영아원, 육아원 등 이른바 고아원과 같은 일부 아동복지시설은 조치제도가 잔존하게 되나, 이밖의 대부분 시설은 복지서비스가 계약관계에 의해 제공되게 됩니다.

사회복지법 개정은 종래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의 복지로부터 [개인의 행복추구]로 전환이라는 의미이며, 복지 서비스 이용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자기결정과 자기 책임에 근거한 계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복지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는 지적장애인이거나 치매노인 등 자기결정과 자기책임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과 권리옹호 체계가 개정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제도 전체가 이 같은 격변기에 있다는 것이며, 보육제도 역시도 오는 2003년 무렵이면 다시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3. 정상화(normalization)이념과 장애아동 통합보육

ㄱ. 장애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의 변화

① 1960년대 말의 세계적인 반체제운동의 영향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운동 역시 1970년대 들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사회적 소수의 권리화 및 권리옹호운동의 진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를테면, 외출의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의 경우를 보면, 당시 [휠체어 승차 거부]를 하는 시내버스의 승차를 위해 몇 시간씩이나 버스운행을 정지시키는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등 장애인 자신이 권리주체로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아울러, 장애아동 부모들은 지역의 일반보육시설과 유치원, 학교 등에서 다른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혹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장애아동 부모가 저희 장애인 문물두드린 결과 장애인 장애아동보육을 시작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②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와 정상화(normalization)이념

일본에서 정상화(normalization)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전후해서입니다. 정상화(normalization)란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은 1950년대 북유럽에서 주로 지적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래, 그 밖의 장애유형과 노인의 경우 등 복지의 제반 존재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됩니다.

③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은 행정부를 포함한 공통의 과제로 됨

정상화(normalization)이념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의 기저가 되는 등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됩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에 들어서는 행정당국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이념이 되어 장애인의 여러 요구 사항을 이 이념을 주축으로 해결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전반은 물론 복지행정에서 통합화, 정상화 이념은 기본적인 것으로 수용되었지만, 여전히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세계적 흐름에 거스르는 [분리교육], 즉 장애아동은 특수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주장됩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아동의 부모가 강경하게 요구하거나, 운동이 강한 곳에서는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행해지고, 특히 오오사카 시 및 근처지역에서는 상당한 숫자의 초·중등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의 대부분 지역에서 통합교육은 소수파적 입장입니다.

한편, 저희 장애인 출신의 장애아동은 상당한 중증장애아동을 포함해 대부분이 집 근처 학교에 입학하여 일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ㄴ. 함께 하는 장애아동보육의 모색 (장애인 聖愛園의 경우)

① 차별반대운동으로서 장애아동 통합보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장애인 장애아동 공동보육은 [차별반대]에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차별은 차별받는 쪽에 문제가 있지 않고 차별하는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전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 공동보육을 반차별의 입장에서 접근 할 때도 문제는 장애아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환경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들 역시도 어른들이 갖는 장애인차별 의식을 모르는 사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같은 환경에 장애아동을 단순히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아이들의 냉대 속에서 장애아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게 되며, 본래 가능했던 능력마저도 발휘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들의 따스한 관심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새로운 영역에도 과감히 도전해 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장애아동 공동보육의 경험을 통해볼 때, 그 학급내의 다른 아이들과 관계하면서 장애아동이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되면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생활양식을 바꿔가는 모습을 봅니다.

② 아동 하나 하나의 자립과 자기실현을 과제로 하는 보육의 모색

장애아동이 학급의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

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과제를 전제로 한 보육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아동에게는 특별한 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하지만 특수한 경우로 보지 말고 학급의 다른 아이와 마찬가지로 존중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란 일반 사람과 다른 특이한 욕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욕구를 실현하는데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장애인 10년 국제행동계획)]이라는 입장에서, 학급의 다른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은 장애아동도 하고 싶은 것이며, 반대로 장애아동이 하고 싶은 것은 일반 아동도 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원래 일반아동만 있는 학급에서도 아이들 모두는 그 개별적인 능력이나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지요. 그 같은 학급에 장애아동이 함께 하게 되면, 서로 다르다는 폭은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장애아동을 받아들여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학급 내에 다양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아이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 교육을 해왔다는 문제 역시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③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공생으로

저희는 아이들이 자기주장과 자기결정이 가능하도록, 더욱이 아이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을 통해 자기실현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생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개별화된 테마를 중심으로한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을 만들어 가기 위한 연결고리가 되는 적극적인 내용을 갖는 이념을 우리 일본사회에서는 현재 반차별이라는 부정적 언어를 통해서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민족이라는 개념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보육운동에서 언어낼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서로의 다름에 기반한 더불어 사는 사회

ㄱ. 지역사회 아이를 의당 받아들이는 [열성]을 배움

지금까지의 한일보육교류를 통해 저희들이 배운 가장 큰 것은 제도나 시설의 틀을 고집하지 않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자신의 일처럼 중시하는 열성이었습니다.

일본의 보육제도는 격변기에 있고, 그 가운데 지역사회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이 보육시설의 중요한 과제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제도나 시설이라는 고정화된 틀을 뛰어넘어 모든 아이들의 성장을 중시하는 열성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 일본의 대부분 보육시설은 조치제도에 안일하게 만족함으로써 지역사회 아이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잊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도의 범위 내에서 혹은 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만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합니다.

저희 성애원과 장애아동 보육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두 곳의 시설의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의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지역사회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점에서 저희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욱 한국의 보육종사자의 열성을 배워 보육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ㄴ. 장애아동 공동보육과 지역사회의 아동양육 지원

저희 성애원은 장애아동 공동보육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제3기의 이른 시기부터 야간보육을 실시하는 등 보육상황의 변화에 상당히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장애아동의 공동보육을 통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보육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은 보호자의 직업형태가 다양하다고 해도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을 보더라도, 원래 장애아동 공동보육이 [부모의 절규와 장애아동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시작된 것]이라서, 이번 사업 역시도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장애아동 공동보육 과정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ㄷ. 문제제기로서 민족보육 - 단순 대면적 관계로부터 공동생활의 구축을 과제로 (2분반)

앞서 한국보육시설 종사자의 열성을 말씀드리면서, 그 배경이 되는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민족이라는 용어는 저희 일본에서는 천황제를 신봉하는 우익의 용어이자, [아마토민족] 지상주의에 의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민족에게 피해를 끼친 이데올로기 장치라는 인식이 있어 함부로 사용하지 않거나, 소극적 의미로 제한해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도 모오리 수상이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발언한 바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국수주의적 민족주의가 다시 나타날 조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아동 공동보육이나 지역사회 아동양육지원과 관련하여 그리고, 자립과 자기결정 및 자기선택이라는 개별화된 의식을 넘어서기 위해 지역공동체의 재생과 더불어 사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천황제의 국수주의적 이데올로기 성격을 갖는 민족주의로서가 아니라, 서로간의 대면적 관계가 친숙한 가운데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과제 역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는 출속으로 풀어가서는 안되고, 장애아동 공동보육사업 · 지역사회 아동양육지원사업 나아가 일상적 보육사업을 통해 저희들 나름의 방향을 찾아낸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한국에 계신 여러분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서로 배워 가려한다는 생각을 말씀 올리면서 오늘 저희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물을 이용한 악기

박부자 · 부천, 동그라미어린이집

동그라미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활동속에서 자연물이 아이들에게 좋은 놀잇감을 알고 자연물을 이용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본 시설의 교구, 교재에 대해 다시금 검토하고 필요한 것은 자연물을 이용해 직접 만들어 주고자 노력한다. 아래 자료는 나무를 주 재료로 한 악기 만들기이다. 아래에 소개되는 놀이감은 올해 부천시 교구교재전시회에 입상한 놀이감이다.

자연물을 이용한 악기 만들기의 교육적 의미와 효과

1. 자유로운 상상력을 심어준다.

자연물로 만든 악기는 기계로 찍어 낸 듯한 느낌이 없으며 악기 자체가 교사의 창의적인 사고에서 만들어졌는데 의미가 있다. 틀에 짜여져 있지 않으며 개성있고 독특한 면이 아이들에게 악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제공해 준다.

2. 자연적인 교구를 생활속에서 늘 접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자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연적인 교구를 제공해 줌으로써 늘 자연과 함께 살아감을 느끼게 해주며,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감이 어색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교구를 통해 자연과 아동자신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게 된다.

3.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 놀이감은 만들어 노는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준다.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이 만드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면 그 교구에 대해 아이들은 의미를 주고 사랑을 쏟고 아낀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놀이감은 사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탈피, 만들어노는 것이 더 즐겁고 가치있음을 활동속에서 느끼도록 한다. (생산의 가치)

4. 플라스틱류의 놀이감보다 감각적, 정서적으로 풍요롭다.

판매되는 것만큼 정교하거나 다양하지는 않으나 플라스틱의 교구보다 소리가 날카롭지 않고 각기 독특한 소리를 내며 촉감도 자연물에 따라 다르며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준다.

5. 교구가 갖는 영역활동 외에 다양한 역할놀이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

제작과정

1. 빨래판 3개

나무로 된 빨래판을 구입하여 안정되게 잡고 소리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자른다. 잘려 남은 부분으로 소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작은 도구를 만든다.



2. 대나무 소리통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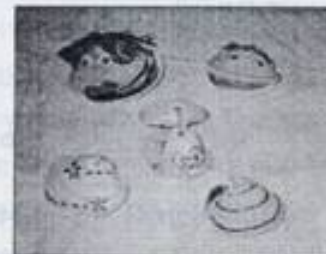
아이들이 한손으로 쥐고 흔들 수 있는 크기의 대나무를 구입하여 재료를 넣고 한쪽만 아크릴판을 동그랗게 잘라 붙이면 내용물(구슬, 쌀, 돌, 콩) 확인도 되며 견고하다.



3. 조개 딱딱이 5개

큰 피조개를 구입하여 조개는 요리하고 껍데기를 깨끗이 씻고 윤을 낸다. 부서지지 않도록 구멍을 내고 고무줄로 묶는다. 털실등으로 조개껍데기를 예쁘게 꾸며준다.

조개소리가 은은하여 좋다.



4. 박 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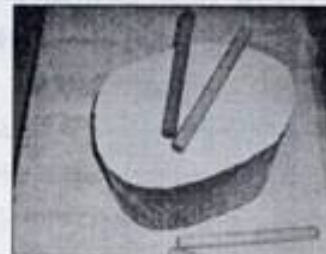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나무 2개를 적당하게 잘라 구멍을 내고 끈으로 서로 엮는다.

서로 부딪혀 소리를 낸다.



5. 다듬이 1개

평소 마당에 있던 통나무를 아이들과 잘 손질하여 물감을 칠하고 그위에 나뭇잎을 하여 말한다. 평평한 위에는 나뭇잎 물들인 광목천을 붙이고 통나무 물레에 맞게 자른다. 방망이로 신나게 두드리면 꼭 다듬이질을 하는 것 같다.



6. 딸랑이 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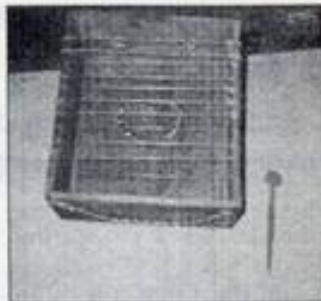
한손으로 잡고 흔들 수 있는 원통형 나무 양쪽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철사에 구슬, 텀버린 알(재활용), 방울 등을 끼우고 원통형 구멍에 철사를 끼우고 빠지지 않게 빗정리한다.



7. 줄 올림이 1개

선물로 받은 직육면체 오동나무상자를 재활용하여 양 옆으로 돌아가며 구멍을 뚫어 한구멍에 하나씩 기타줄, 낚시줄을 여러개 꼭 위는다. 늘어난 줄을 한번 묶어주면 조율의 효과가 있다.

말하자면 네모난 기타로 오동나무라서 올림이 좋고 음정도 제법 맞는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악기이다.



8. 대나무 흔들이 1개

쓰고 남은 대나무를 활용한 것으로 대나무 크기와 길이를 조금씩 달리 하여 막힌쪽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기저귀용 고무줄을 집어 넣어서로 묶어 만든다. 판매되는 여러 종소리 같은 모양인데 대나무가 부딪치 소리가 남으로 독특하다.



뒷이야기

아이들이 몰입하여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전과정에 늘 아이들의 손길이, 때로는 눈길이 따라다녔다. 생각보다 어려워 목공소를 찾기도 여러 번...

교사들, 아이들의 손때 묻은 작품을 전시할 때의 그 긴장감 !!!

XXO어곳에서 출품했고 우리 눈엔 우리것이 제일 멋지 보였지만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 작품들에 기죽어 상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데 의미를 두자고 서로 위안하며 아침을 맛았다. 전화소리에 신참교사가 방방뛰며 "선생님! 입상했다고 빨리 상 받으러 오

래요!!! 그 후 에, 어른 할 것 없 이 모두 방방방방.....

상금으로 조촐하게 잔치 도 벌이고 맛있게 먹었다. 교사들 모두 상장을 받았고 사회생활이래 참이라고... 그 감격 !!! 영원히 잊지 못하리요



현장교육2

박물관 여행

이인희 · 인천지부

사막한 도시에도 가을은 머문가 봅니다.

군데군데 가을 옷을 입은 나뭇잎들이 떠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그런대로 달래 줍니다.

"박물관 소모임"을 시작할 때는 지부의 공식 소모임으로 들어가지 않았고(현재는 인천지부 소모임) 한 달에 한번 박물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계획하고 일요일이면 직접 박물관 견학을 갔습니다. 중앙박물관은 강사를 모시고 5회(한 번에 두 전시실씩)답사 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원도 강릉까지 가서 경험해 본 살아 움직이며 아름다운 음악까지 들려주는 "참소리 축음기 에디슨 박물관", 국악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용기민속 박물관, 지구촌 박물관, 삼성교통박물관, 간송박물관, 이대자연사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등등... 적어놓고보니 꽤 많이 다녔나 봅니다.

특히 인상깊었던 곳은 참소리축음기 에디슨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사립박물관이면서 다른 여타 박물관과는 달리, 그저 놓여져 있는 채로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움직이고 소리를 들려주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홀보다 비싸다는 축음기에서부터 에디슨의 발명품인 작은 전등(지금도 켜지는)까지, 사실이 부족



하여 창고에 쌓여있는 많은 보물들이 우리를 가난한 주머니까지 털게 하더군요.

강릉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가는 길은가서 물어보시고, 어린 3, 4세 아이들이라도 충분히 즐기고 체험 할 수 있고, 연말에는 음악회도 아니, 가족과 친구들과 가 볼만한 곳입니다. 오시는 길에 경포바다에서 산책도하고 산을 좋아한다면 강원도 아름다운 산들이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구요.

다만 어린이집 아이들을 데려가기에는 너무 멀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지만, 이는 만큼 보인다고 교육의 절은 교사의 절을 넘지 못한다고 하니, 우리선생님들이 먼저가보는 것이, 그래서 보이는 만큼 아이들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군데 더 권하자면 국립국악원에 있는 '국악박물관'입니다. 일요일에 갔더니, 박물관 앞마당에 사물악기와 여러 가지 전래 놀이감을 내놓고 직접 쳐

볼 수 있게 해놨더군요 우리는 신나게 쟁과리 장구도 치고 오랜만에 굴렁쇠도 굴러보고 팽이치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민속놀이에 푹 빠져, 그땐 여름이었는데, 이열치열 온몸이 땀으로 젖은 줄도 몰랐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고 전철타면 방배역, 사당역, 양재역 등에서 가까우니 어린이집 아이들과 산나는



가을 한 낮을 보낼 수 있겠네요.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중앙 홀에는 유리벽으로 막아놓지 않은 타악기들이 많아서 그 울림이 직접 전해지는 듯하고, 다른 나라 악기들도 함께 전시해 놓은 곳에서는 각 나라 악기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고, '악기전시실' 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버튼을 누르면 해금, 가야금, 거문고, 대금, 단소 등의 소리를 들어 볼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즐거움 한가지를 보낸답니다.



올 2000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 볼만한 사람박물관을 몇 군데 다녀왔고, 또 더 잘 예정입니다.

그중 용기 민속박물관을 권하고 싶습니다. 미리 전화로 예약하면 아이들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제작 방법에 따라 질그릇, 푸레독, 용기 오지, 반용기 등 많은 종류의 용기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면서 알게 됩니다. 용기박물관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고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 하차하여 버스 6, 8번 이용, 서라벌 중학교에 하차하면 됩니다. 참, 이곳은 박물관 주변이 그리 넓지 않아서 너무 많은 인원이 가면 점심 먹을 곳이 부족할까 염려됩니다. 야외 전시실에는 농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우리 아이들과 어떤 농기구가 어떤 농사일에 쓰였는지 이야기 해보면 재미 있겠지요.

이외에도 이대 자연사 박물관은 이화여대 안에 있어서 충분한 야외놀이 공간 확보와 깊어 가는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겠고, 간송 미술관은 일년에 두차례, 봄에 토요일 일 네 번과 가을에 토요일 네 번만 특별전으로 전시합니다.

윤가움에는 10월 15일에 다녀왔는데 김홍도와 신윤복 특별전으로, 재미있는 그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간송 미술관 마당에 있는 감나무들은 빛깔고운 감들을 가지땀으로 선물하고 있어서

고향생각 절로 나게 합니다.

요즘 우리 박물관 소모임원들은 가을을 송두리째 박물관에 바쳤습니다. 인천시립박물관 주관 박물관대학에서 '우리 고미술 되살리기'란 주제로 토요일마다 4시간씩 이론 강의를 듣고, 일요일 세 번을 답사로, 이 가을 두 달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 절터 발굴현장, (주변경치가 아름다워요.) 경기도 박물관(아주 잘 되어있어요. 꼭 가보세요.) 인천 계양문화회관에서 금석문 탁본 실습도 몇 회원이 참석했고, 조선시대 5대 궁궐도 답사할 예정입니다. 수강료가 얼마나가요? 공짜입니다. 대신 한 번 이상 빠지면 수료증도 못 받는다고 하여, 이런저런 행사가 유독 많은 가을에, 배우는 기쁨(?)과 맞출 수 없는 일정 때문에 버리까봐 수만 날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박물관 소모임에 글을 써 달라는 제안이 오래 전부터 들어 왔었어요. 서로 안 쓰겠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사다리타기까지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부족한 제가 쓰게 되었어요.

이제 막 그동안 박물관 다녀왔던 것 자료 모으고 정리하는 정리팀을 구성한 것에 불과 한데, 그것들이 다 정리되고 나면 아주 유익한 글이 나올텐데 ... 아쉬움을 뒤로하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장 남은 박물관 몇 곳을 적어 보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갈 박물관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고민중인 선생님들께 꼭 한 마디 하고 싶다면, 한번에 제대로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박물관은 한 번 가면 한두 전시실만 천천히, 자세히, 즐기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멀리 안가도 내가 사는 지역에 좋은 박물관이 의외로 많으니 찾아보는 일도 권하고 싶습니다.

이 가을에 기왕 가는 여행이라면 박물관도 살짝 끼워 제자리에 돌아 왔을 때 허무하지 않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현장교육3

통일놀이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통일 준비 '꼬니'

장효진 · 서울 감원초등학교

아래에 소개되는 통일놀이는 놀이연구회의 '놀이' 9월호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남녘의 고누와 북녘의 꼬니는 땅 위나 평평한 관 위에 말뚝을 그리고 말뚝을 놓거나 옮기면서 노는 놀이이다. 10세기 초의 것으로 인정되는 황해남도 배천군 청자가마에서 고누판이 그려진 도자기를 만드는데 쓰이던 갑자가 발견되었고, 18세기의 화가 김홍도가 그린 그림을 통하여 그 연원의 오래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누는 그 종류가 대단히 많으나 '우리나라의 민속놀이'에서는 노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① 말을 포위하여 승부를 겨루는 꼬니
- 말꼬니, 강꼬니, 호박꼬니, 포위꼬니
- ② 말을 움직여 때어내는 꼬니
- 네줄 꼬니, 네바퀴꼬니, 팔팔꼬니, 패랭이꼬니
- ③ 말을 포위하여 때어내는 것을 결합한 꼬니 - 장수꼬니, 왕꼬니
- ④ 말을 적당한 자리에 놓고 때어내는 꼬니 - 줄꼬니, 참꼬니
- ⑤ 주사위를 굴리며 노는 꼬니

이처럼 고누와 꼬니는 말판과 말뚝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녘과 북녘에서 두루 행해져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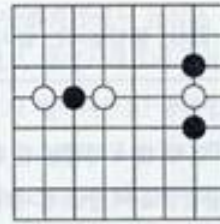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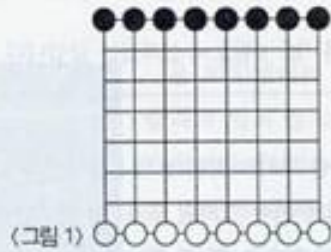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남녘의 아이들과 북녘의 아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겨루어 볼 수 있는 고누를 몇가지 소개해 본다. 용어의 어색함을 극복하기 위해 이후로는 '고누' 대신에 '꼬니'라는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1.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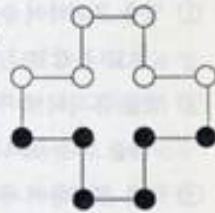
(1) 발꼬니

- ① 상대방 말을 가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이기는 꼬니이다.
- ② <그림1>과 같이 각각 3개의 말을 가지고 시작한다.
- ③ 말은 한 번에 한 발씩만 움직일 수 있다.
- ④ 서로 말을 움직이다가 <그림2>와 같이 상대방의 길을 막아 더 이상 말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면 이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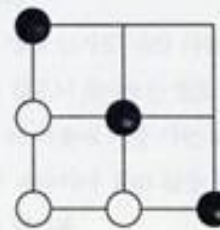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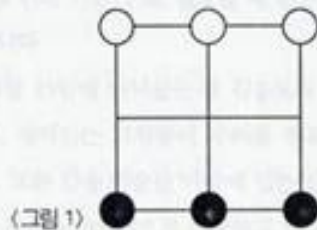
(2) 패랭이꼬니

- ① 자기의 임의의 말부터 열까지 수를 세어 상대방의 말을 패어내는 꼬니이다.
- ②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 말을 6개씩 놓고 시작한다.
- ③ 일 번째 지점에 상대방 말이 있으면 패어내고, 비어있으면 그 곳에 자기의 말을 둔다.
- ④ 만약 열 번째 지점에 자기 말이 있으면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야 한다.
- ⑤ 서로 말을 번갈아 움직여 상대방의 말을 모두 패어내면 이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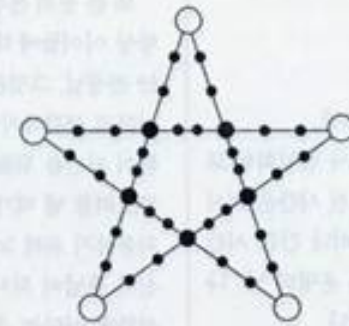
(3) 팔팔꼬니

- ① 자기의 두 말 사이에 상대방의 말이 놓이게 되면 상대방 말을 패어내는 꼬니이다.
- ② <그림1>과 같이 각각 말을 8개씩 놓고 시작한다.
- ③ 말은 앞, 뒤, 좌, 우로 얼마든지 직선을 따라 갈 수 있다.
- ④ 말을 움직일 때 앞에 자기나 상대방의 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
- ⑤ <그림2>와 같이 자기 말을 움직였을 때 상대방 말이 자기 두 말 사이에 놓이게 되면 그 말을 패어낸다.
- ⑥ 상대방의 말을 모두 패어내면 이긴다.



(4) 별꼬니

- ① 주사위를 가지고 누가 먼저 별의 둘레를 먼저 돌아오는가를 겨루는 꼬니이다.
- ② 다섯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 ③ 아래 그림과 같이 별의 꼭짓점에 각자의 말을 하나씩 놓는다.
- ④ 순서를 정해 차례대로 주사위를 한 번 굴러 나온 수만큼 별의 둘레를 따라 말을 움직인다.
- ⑤ 이 때 교차점에 말이 놓이게 되면 별 안에 있는 점을 따라 지름길로 갈 수 있다.
- ⑥ 별의 둘레를 한 바퀴 가장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2. 복녘 놀이의 특징

복녘의 꼬니는 남녘에서 행해지는 고누와 거의 유사하나 주사위를 이용한 놀이를 고누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3. 놀이 진행의 단계

- ① 1단계 : 모듬별로 남녘과 복녘의 광역행정구역 또는 도시이름으로 모듬 이름을 정한다.
예) 1모듬 - 전라도, 2모듬 - 평안도, 3모듬 - 신의주 등
- ② 2단계 : 같은 모듬원거리 리그전으로 승수를 가려서 가장 승수가 많은 사람으로 모듬별 지역대표를 한 명 뽑는다.
- ③ 3단계 : 지역대표거리 제비뽑기를 대진표를 작성한 후 전국통일고누왕 대회를 실시한다.
- ④ 말을 적당한 자리에 놓고 패어내는 꼬니 - 줄꼬니, 참꼬니
- ⑤ 주사위를 굴리며 노는 꼬니

신입회원교육을 마치고....

이순덕 · 서울 북부지회

아래의 글은 서울지부 소식지인 '애 찾았다' 9월 호에 실린 글입니다.

빛이 머무는 곳

가을이 되면서 무척이나 힘겨웠던 10월.

한 주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보육교사 신입회원 교육이었다. 일주일의 열마나 긴지,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다른 날과 똑같은데, 한 주는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다. 상상의 나날을 피우며 다가온 운명의 날, 나는 그만 작은 비명을 자를 수 밖에 없었다.

첫 방문이라 그래도 꽃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 나비는 데려갈 수 없고 하여 가을을 상징하는 나뭇잎의 어여쁜 꽃들 두그루 가슴에 안고 택시를 타고 향했던 것.

꽃들은 피고 있었지만 화려하지 않은 꽃. 백백이 들어 있는 꽃들의 서재. 그리고 작은 공간.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이 꽃의 고마움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가를 잠시 동안 생각해 보았다. 반갑게 맞아주는 언제나 넉넉한 우리 대표님, 그리고 진숙 선생님.

나는 반가움에 수다를 떨다 교육장으로 향했다. 교육장은 지하, 뭐 그렇게 어두운 곳은 아니었지만 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나의 성격이니까?

신입회원은 10명정도 참가한 것 같다. 어린이집 사정으로 조금 늦은 선생님도 계셨지만...

교육은 대표님의 인사와 함께 어린이 선언문으로 시작되고 진숙 선생님이 애써 준비한 자료로 교사들의 고충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잘 할 수 있는 것 등등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의 명함을 만드는 것과 교사로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낄 때였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동참한 교사들은 모두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그렇다. 모두가 희망에 찬 듯한 느낌 그것은 자아

발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양심에 대한 발언도 해주었다. 항상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낸다 는 선생님. 그것은 아마도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이 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낼까? 때론 난 아이들에게 큰소리를 낼 때가 있다. 물론 그러고나면 아이의 맘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만 큰소리를 냈다는 나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자신의 하루를 반 성하며 산다는 것, 가장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데 나와 함께 교육에 동참한 선생님들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음날을 기약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보육교사회가 더 밝 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항상 빛은 구하는 자에게 광명이 주어지고 머무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열의는 뜨거웠고 근사한 저녁과 강촌의 즐거움은 아마도 따스한 추억으로 머물 것이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2000년 가을 많은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참 책 한 권 소개해도 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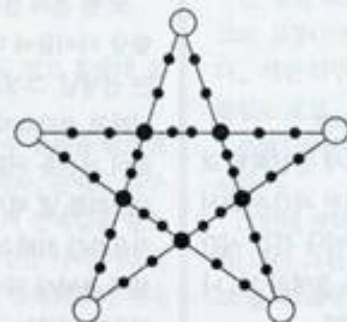
제목: 창가의 포토/구로야나기 테츠코 작품. 이바사키 치 히코 그림/김난주 옮김/프로메테우스 출판사.

제가 가장 소중한 분께서 선물한 책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읽으면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리를 빌어 저를 기쁘게 해주신 분께 감사를 항상 건강하기를...



(4) 별꼬니

- ① 주사위를 가지고 누가 먼저 별의 둘레를 먼저 돌아오는가를 겨루는 꼬니이다.
- ② 다섯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 ③ 아래 그림과 같이 별의 끝점에 각자의 말을 하나씩 놓는다.
- ④ 순서를 정해 차례대로 주사위를 한 번 굴러 나온 수만큼 별의 둘레를 따라 말을 움직인다.
- ⑤ 이 때 교차점에 말이 놓이게 되면 별 안에 있는 점을 따라 지름길로 갈 수 있다.
- ⑥ 별의 둘레를 한 바퀴 가장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2. 북녘 놀이의 특징

북녘의 꼬니는 남녘에서 행해지는 고누와 거의 유사하나 주사위를 이용한 놀이로 고누의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3. 놀이 진행의 단계

- ① 1단계 : 모둠별로 남녘과 북녘의 광역행정구역 또는 도시이름으로 모둠 이름을 정한다.
예) 1모둠 - 전라도, 2모둠 - 평안도, 3모둠 - 신의주 등
- ② 2단계 : 같은 모듬원끼리 리그전으로 승수를 가려서 가장 승수가 많은 사람으로 모듬별 지역 대표를 한 명 뽑는다.
- ③ 3단계 : 지역대표끼리 제비를 뽑아 대전표를 작성한 후 전국통일고누왕 대회를 실시한다.
- ④ 말을 적당한 자리에 놓고 매어내는 꼬니 - 줄꼬니, 참꼬니
- ⑤ 주사위를 굴리며 노는 꼬니

신입회원교육을 마치고....

이순덕 · 서울 북부지회

아래의 글은 서울지부 소식지인 '애 찾았다' 9월 호에 실린 글입니다.

빛이 머무는 곳

가을이 되면서 무척이나 힘겨웠던 10월.

한 주를 기다리게 하는 것은 보육교사 신입회원 교육이었다. 일주일의 일이나 긴지,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다른 날과 똑같은데, 한 주는 무척이나 긴 시간이었다. 상상의 나날을 피우며 다가온 운명의 날, 나는 그만 작은 비명을 저를 수 밖에 없었다.

첫 방문이라 그래도 꽃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 나비는 데려갈 수 없고 하여 가을을 상징하는 나뭇잎의 어여쁜 꽃들 두그루 가슴에 안고 택시를 타고 향했던 것.

꽃들은 피고 있었지만 화려하지 않은 꽃, 백백이 들어서 있는 꽃들의 서재. 그리고 작은 공간,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는 이 꽃의 고마움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가를 잠시 동안 생각해 보았다. 반갑게 맞아주는 언제나 넉넉한 우리 대표님, 그리고 진숙 선생님.

나는 반가움에 수다를 떨다 교육장으로 향했다. 교육장은 지하, 뭐 그렇게 어두운 곳은 아니었지만 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나의 성격이니까?

신입회원은 10명정도 참가한 것 같다. 어린이집 사정으로 조금 늦은 선생님도 계셨지만...

교육은 대표님의 인사와 함께 어린이 선언문으로 시작되고 진숙 선생님이 애써 준비한 자료로 교사들의 고충과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잘 할 수 있는 것 등등으로 진행되었다. 진행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자신의 명함을 만드는 것과 교사로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낄 때였는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동참한 교사들은 모두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그렇다. 모두가 희망에 찬 듯한 느낌 그것은 지아

발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또 한 분의 선생님은 양심에 대한 발언도 해주었다. 항상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낸다.는 선생님. 그것은 아마도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지낼까? 태운 난 아이들에게 큰소리를 낼 때가 있다. 물론 그러고나면 아이의 말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도 하지만 큰소리를 냈다는 나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자신의 하루를 반성하며 산다는 것, 가장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데 나와 함께 교육에 동참한 선생님들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다.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음날을 기약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보육교사회가 더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항상 빛은 구하는 자에게 광명이 주어지고 머무는 것이라 생각한다.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열의는 뜨거웠고 근사한 저녁과 강촌의 즐거움은 아마도 따스한 추억으로 머물 것이다.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문... 2000년 가을 많은 기쁨으로 보내시길...

참 께한 권 소개해도 될까요?

제목: 창가의 토로/구로아나기 테츠코작품, 아와사키 치히로그림/김난주옮김/프로메테우스출판사.

제게 가장 소중한 분께서 선물한 책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읽으면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자리를 빌어 저를 기쁘게 해주신 분께 감사함을 항상 건강하기를...



아주 특별한 만남 서울지부 강촌 긴 나들이를 다녀와서...

김인경 · 서울 남부, 문문어린이집



아래의 글은 서울지부 소식지인 '애 찾았다' 11월 호에 실린 글입니다.

신입회원 교육을 받고 맛난 저녁도 먹고 후발대 오 후 8:30분 출발.

밤 10:11분 도착하자마자 많은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포옹)차차차, 손뼉도 마주치고 길고 긴 코스모스 환호를 받으며 산책길을 걸으면서 얘기 보파리로 웃음꽃 피우며 걷는 사이 어느새 우리 민박에 도착. 황-잉잉. 썰렁한 남북회담이 지나가고(꼭 그렇게 마주보게 앉아서...)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심리 테스트 나, 토끼, 다리, 열쇠 이 단어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연결하여 동반자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느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게임시작 - 도전30곡 노래 부르기 만20대 만30대 편을 갈라 발칙으로 곡주 마시기

우와! 20대만 무지하게 개짱-

두 번째 게임 편갈라 색깔 많이 뒤집기 우와! 30대의 힘이란 짐작없이 20대가 밀려 그 별로 청소, 뒷풀이 준비를 열심히 마련하여 신나는 이야기 보파리를 풀어. 한잔 두잔 분위기는 무르익어 이윤경 지부장님의 자칭 노래상자 100곡 60년대-80년대까지 기기다 반화노래 까지...

오랜만에 느껴보는 정겹고 포근한 분위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함께 하나가 되어 공감대가 형성되고...

아니 근데 조직의 쓴맛을 보이준 황호정 조직부장 언니는 벌써 무엇이 그리 힘이 드신지 잡자리에, 잉꽃꽃꽃. 후! 보복이 두려워서...? 3시가 넘어 너도나도 쿵 하고 자리에 누워 꿈나라로 직행...

쉴 일찍 주무신 안경자 선생님과 이윤경 지부장님 등은 벌써 깨서 밖에 나가시고 아직은 조금더 잘 수 있다는 희망 아래 눈을 감고 있는 남은 선생님들도

800시에 기상.

한 명만 빼고 - 썩썩이의 김수연 선생님 무시라 산고의 고통(?)때서 못 일어난다고 했다. 아무튼 죽었다... 계란 라면, 김치라면, 일큰한 해장밥을 먹고 후딱 불일도 보고...

우와! 자전거가 나들 아니, 우리를 부른다. 하이킹 시간--

그런데 콩닥콩닥 가슴은 뛰고 (오랜만에 타보는 거라)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선생님들들도 그랬다고 함.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합- 기압 들어가는 소리 한번 외치고 초보용으로 끌고와 타보니 으이그(비둘기들 지렁이가 슬며시 숨쉴듯이 가고 있음)

이때 또 슬며시 주위를 보니 잉 나만 그렇게 아니잖아? 다른 선생님들도 뭐.. 이히히히

코스모스를 지나 강변을 따라가는 그 기분이란... 조금은 침울한 나의 마음을 씻겨주는 것 같았다.

다음에 또 와야지 다짐을 하며 차 시간 땀시 가야하는 그 안타까움이란...

"자 사진 한 장 찍어야지." 무전장 자신의 몸매에 자신이 있는 듯 우리의 지부장님(이윤경)의 말씀이시다. 강촌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은 물결이 안되니 물결이 될 때 찍자고 하시더니 차에 오르기 전까지 사진에 목숨을...히히히

덕분에 공주와 향단이가 분명히 가려졌지만 호호호...(좌송)

백백 기차소리가 나고 우리들은 즐거웠던 강촌을 뒤로 하고 일차에 올랐다.

썩여진 시간속을 벗어나 한 배를 탄 사람들과 따뜻한 정을 주고 받고 한 서울지부의 긴 나들이를 -~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고 소망도가 저분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아주 많이. 많이

'진'을

좋아하는 이상욱 선생님

이경자 · 서울특별시, 우리아이들의 나라 우리 어린이집

내가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는 바쁜 아줌마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한국보육교사회 행사나 교육 강좌 때 등 이러면 그대의 미리스 타일이 변하듯 느낌도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구나. 저 사람의 저 정열과 적극성의 근원은 무엇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 보았죠. 아직도 젊은 나, 더 치열하게, 더 열심히 그날 그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을 잃지 말자고 다짐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먼거리에서만 만나던 그대 이/상/욱 선생님을 신촌에서 만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전통 찻집에 자리를 잡은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하지?"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로 시작했지요.

요즘 무슨 고민을 하며 살고 있나요?

난 왜 이렇게 살아왔나? 나 자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고민이 너무 많아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들 정도예요.

첫번째 질문의 대답을 듣지는 못했지만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오랜만에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의 삶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요?(물건도요)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살다보면 나의 진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다고 조금씩 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내 진실을 알겠지...라고 마음먹으면 편안해요.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기 때문에 신념을 저버리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아끼는 물건은 우리 아들이 장가가면 출전돼요. 일기장과 앨범이랍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일기처럼 쓴 것이 있어요. 4학년까지는 열심히 썼는데 요즘 잘 못쓰고 있어요.

'난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교사, 난 인자한 할머니이고 아이들은 꽃처럼 밝고 화사한 모습으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놀기도 하고 날 올라타고, 내 무릎을 베기도 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시간이 나가거나 피곤할 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시간이 나면 주로 등산을 가요. 또는 휴일날 아침일찍 그런 공원 같은 곳에 갔다옵니다. 단, 꼭 이른 아침에, 그리고 비가 온 다음날 공원이나 경복궁같은 곳에 가면 너무 좋아요.

씨중날 때는 아무도 없는 공간(예컨 후 어린이집, 다들 잠든 내집)에서 음악들으면서 차 마십니다. 이 때 음악은 국악을 들어요. 허준 테마음악이나 김용우 씨 음악 등. 그런 다음 정리를 위한 일기를 쓰지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나요?

좋은 때는 햇사르 밝은, 바람, 들꽃 등 자연을 생각해요. (님 멋지다) 그럼 '아! 나가자! 어디로? 세상 밖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알리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한국보육교사회 회원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런 과정에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어요. 주인으로 서니까 자신감, 당당함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변하게 해준 사람이 있듯이 내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윤경 선생님이죠.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듬뿍'

끝으로 선생님이 아직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시란 말과 함께 그날 떡볶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물주 선생님입니다 남자다 !!!

채미선 · 대구, 한사랑어린이집

남 자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세상에는 온통 여자 아니면 남자인데... 하나 곳에 따라서는 성별로 인해 주목받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다. 남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여자라던가, 이학교를 찾아온 남학생 등등. 이런 비유에 비하면 보육교사회의 유일한 남자라는 것이 그리 민망하지는 않을 것도 같은데 본인에게 심증을 물은 적은 없으나 가끔 보는 총회나 모임에서의 모습은 뚜렷뚜렷, 두리번, 좌불안석이다.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집 교사들이 숫적으로 여자가 많으므로 당분간은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다. 유일한 해결책은 이 글을 읽는 어린이집에서만이라도 빨리 남자 교사를 구하는 것뿐.(이왕이면 꽃미남으로...)

그래도 입장차이라고 수녀원 내의 신부님은 의젓, 당당하고 존경까지 한 몸 에 받질 않는가?

본인이 극복하여 추앙받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

이런 연유로 인물탐방기에서 다른 어린이집 교사를 만나야 하지만 지금 기회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 인터뷰를 실시한다.

소속 기관을 알려주세요.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국 및 한사랑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는요?

33살입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 오셨는지요?

대구대 특수교육학과 89학번이며 한사랑 장애아 어린이집 8년째 근무하고 있고, 현재 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로 활동 중입니다.



지니고 있는 것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가지는요?

장애인지역공동체, 한사랑어린이집,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동료)
- 무소유주의자이어서인지 사물은 한 가지도 대지 않았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장애인의 문제를 많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알아갈수록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듭니다. 끝을 못보겠지만....

끝을 못 보겠지만 죽는 날까지 그 끝을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끝은 장애인에게 가장 알맞은 사회를 만들고 일반인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요?

술, 담배, 돼지 김치찌개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친구와 여자 중 평생을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친구죠. 남자들은 여자들은 원래 너무 집착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지게 마련이고 서로를 다치게 하니까요.

자신이 여자에게 가장 잘해 줄 수 있는 점은 어떤 것인가요?

전화걸기입니다.

현재 지역 보육활동이 극복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대구지역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에 많은 시간이 투입됨으로 인해 전체 타아 문제를 풀 수 있는 활동이 부족한 것과 회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봅니다.(인력의 문제)

보육교사회에서 유일한 남자로 알고 있는데 총회나 모임에서 느끼는 기분을 솔직하게 말하자면?

Good!!

한국보육교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 세상을 바꾸려는 생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국보육교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Let's Touch

이래의 글은 지난 9월 2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기관이다. 추위와 위험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무게 3kg의 이 기관은 감촉을 느끼는 수용체로 가득차 있다. 누군가가 나를 쓰다듬을 때 수용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은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뇌에서 한바탕 불꽃놀이를 일으키고 새로운 신경망을 만든다.

특히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피부 접촉이 정상적인 뇌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접촉에 굶주린 아이는 잘 먹지 않고 두뇌와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는다. 또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이성 관계에 적응을 못하고 우울증과 불감증에 시달리게 될 확률이 높다.

문제는 선진국이 될수록 아이와의 피부 접촉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맛벌이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오고, 잠도 혼자서 자고, 땀자식의 시트에 묶여있게 된다.

피부 접촉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 신경학자와 심리학자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요즘 미국에는 '터치 운동'의 물결이 일고 있다. 피부 접촉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가 생기고, 아기 마사지 가이드 북, 베이비 마사지를 오일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병원에서는 미숙아 마사지가 보편화되고, 일부 아동병원은 "오늘 아이를 안아주었습니까?"라는 문구를 벽에 붙여놓고 있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발달심리학)는 한국인도 선진국형 접촉 결핍증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한다.

"우리는 어머니의 등에 업혀 심장소리를 느꼈고, 볼을 비벼대는 부모와 눈을 맞추었고, 젖꼭지를 물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요즘 아이들은 엄마와의 접촉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황교수는 "특히 미숙아에 대한 마사지는 약이나 주사보다 훨씬 효과적인데도, 우리나라의 병원은 삭막한 아파트식 인큐베이터 속에 아기들을 방치해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 수가에도 미숙아에 대한 마사지 치료가 반영돼 있지 않다. 외국에서는 미숙아에게 마사지를 하면 그냥 뇌된 미숙아보다 50%나 빨리 자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다.

신생아의 접촉 결핍증은 2차대전 당시 고아들의 이유없는 죽음에서부터 연구가 시작됐다. 좋은 약과 음식, 깨끗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의 사망원인이 밝혀진 것은 '접촉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스콘신대 해리 할로 교수에 의해서였다.

그는 70년대에 원숭이 실험을 통해 한살 미만의 원숭이에게는 접촉의 재가가 다른 네 가지 감각의 결핍보다 뇌에 훨씬 큰 손상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접촉없이 자란 원숭이는 판에 박은 행동을 반복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에 흥미를 못 느끼며, 접촉을 두려워하고 공격성을 나타내며,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아가를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미국국립보건원 신경심리학자 제임스 프리스콧은 세계 400개 문화권을 조사했다. 그 결과 어려서 아이를 잘 만져주고, 키스나 포옹같은 연인의 애정 표현에 개방적인 사회일수록 폭력이 적다는 것을 통계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듀크대 신경학자인 소울 셸버그 교수는 "피부 접촉의 효과는 언어나 감성적 접촉보다 10배는 강하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한 생물학적 근거가 밝혀졌다"고 말한다.

'자신감 있는 아이 키우기'란 책을 쓴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베일은 성공적인 육아법 5개 가운데서 접촉을 첫째로 꼽는다.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와 공생관계이다. 이 때 아기에게는 우리만이 있을 뿐 나와 타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접촉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발전하면서 자아관 개념이 썩는다. 또 다른 사람이 만져줄 때 내가 가치있는 존재란 느낌을 갖고, 사람과 접촉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된다. 탄생 초기 접촉을 통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나중에 커서 사회적 관계의 주형이 된다."

하지만 우리의 유교문화 속에는 여전히 접촉=섹스=죄악이란 고정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있다. 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지나치게 키워워 해주면 버르장머리가 나빠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접촉에 목말라하는 신생아는 아무리 안아줘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지적이다.

황상민 교수는 "접촉은 출생 12년 뒤까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학교에 적응 못하고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에게도 효과가 있다"며 "이런 아이에게는 나무라기보다 꼭 안아주면서 사랑을 느끼게 하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한다.

(신동호 동아사이언스 기자)



걸음마기아동에게, 타임아웃 (Time out)은 적절한 방법인가?

조인숙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걸음마기는 신체적 능력에서 제법 잘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서 어른들은 막무가내이고 고집스럽다고 느끼게 된다. 어느 부모이고 걸음마기의 자녀를 둔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힘든 애 처음 봤어'라고 말할 정도이다. 아무때나 올라가기, 무작정 고집부리기, 반찬 퍼 해치기, 예기 물기, 장난감 집어 던지기 등등 엄청난 폭력을 휘두르며 어른들을 굴복시킨다. 이제까지 의존대상이었고 욕구 충족의 대상이었던 대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능동적으로 세상을 탐험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가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동은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충동적이고 고집이 센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걸음마기 아동의 특징은 어린이집에서 그들을 보육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어려움과 난감함을 자주 느끼게 한다. 연구에 의하면 교실에서 걸음마기 아동은 공격적인 행동을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반항적인 행동, 미성숙 행동, 위축행동의 순으로 보이고 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발버둥 치고 뺨댄다든지,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다른 아이들을 물거나 때리는 경우,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에 난감하고 정말 힘들다고 말한다.

이때 교사들은 대개 타임아웃이라는 행동 지도 방법을 사용한다. 소위 '생각하는 의자'를 만들어놓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할 경우 그곳에 가서 당분간 앉아 있게 한다.

타임아웃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지 못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방법이다. 많은 영아교사들은 교실에서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타임아웃을 적용한다. 그것은 큰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지 않고 아이를 혼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행동을 제자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타임아웃을 사용하도록 배웠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일까? 타임아웃이 영아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어떤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고 습관을 내면화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걸음마기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걸음마기 교사는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다.

걸음마기 교사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다음은 Schreiber(1999)의 글을 요약하였다.

타임아웃이 걸음마기 아이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타임아웃은 아동의 문제해결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행동을 강요하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조절하는 것은 아동의 내면적인 조절을 하고자 하는 요구와 모순된다. 그래서 자율적인 문제해결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임아웃은 저항할 수 없음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무기력하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2. 타임아웃은 성인의 요구만 전달했을 뿐 아동의 요구는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원치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타임아웃하는 것은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교사의 요구는 전달되었지만 아동의 요구는 설명되지 않는다. 분명히 아이들은 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진희의 트럭을 빼앗은 명수는 '나도 트럭을 갖고 놀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었지만 타임아웃에서는 아동의 그러한 요구는 해결되지 않는다.

3. 타임아웃의 반복적인 사용은 아동의 자아 가치감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타임아웃으로 인해 성인의 감정과 요구가 계속적으로 우선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는 거의 가치없다고 믿게 될 수 있다. 또한 타임아웃을 계속 당하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함께 놀기를 꺼려하며 문제로 낙인찍히게 될 우려가 있다.

4. 행동과 결과의 간접적인 관계는 아이들에게 혼란스럽다

Lilian Katz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만약 아이들의 정신능력은 보통이라면 타임아웃 의자에 앉게 해서 정신을 잊지를 필요는 없다. 특별한 의자에 앉는 것과 다른 아이들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 간의 인지적 관계는 4살 아이들에게 혼란스럽지 않더라도 정말 모호함에 틀림없다. (1984, 8-9)

Katz는 4살 아동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로 받은 벌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자신이 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의자에 안한다고 하여 그들이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덜 성숙한 2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당황스러울지를 상상해보라.

5. 타임아웃의 고립기간 동안 오히려 가치있는 학습경험의 기회가 상실된다. 걸음마기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에서 배운다.

영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 벌어진 후에 달려와서 타임아웃으로 해결해주는 판사와 같은 교사가 아니라 항상 영아 옆에 있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그리고 항상 함께 놀이하고 관찰하여 문제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걸음마기는 도전과 탐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지만 분명히 몇가지 지켜야 할 규칙과 통제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타임아웃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걸음마기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단절된 방법으로 훈계하거나 지시하려고 하지 말자는 것이다. 교사는 영아들과 함께 놀면서 가능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안하거나 보여주면서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규칙과 통제를 알게 하기 위해

첫째, 성인들은 영아들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어야 한다.

"이것을 하겠니? 저것을 하겠니?", "너는 00는 할 수 없어, 하지만 00는 할 수 있단다."

그러나 너무 많은 선택은 오히려 영아들에게 혼란스럽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번에 너무 많은 정보와 선택을 모두 주는 것은 혼란스러우므로 제안은 명료하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둘째, 아이에게 도전적인 상황을 처리할 기회를 주면 훨씬 순한 아이가 된다.

"코트를 이 큰 트럭에 실어서 방에 갖다 놓겠니?"와 같은 제안은 아이들이 장애를 독립적으로 극복하고 조절과 자제감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상황을 제공한다. 만약 아이들이 그것을 자주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된다면 그들의 힘을 시위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셋째, 교사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보여주어야 한다.

걸음마기들은 복잡한 언어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이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나 욕망을 표현하기에는 언어적 능력에 한계에 부딪힌다. 걸음마기는 당연히 자기 중심적이고 아직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걸음마기를 데리고 와서 로봇처럼 "미안하다고 해"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아이들은 미안하다는 말에 담겨있는 그 복잡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단지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상황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믿게 될 수 있다. 유사하게, "차레 차레!" 그리고 "같이 놀아" 등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요구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울음으로 말을 내뱉을 때 교사들은 "말로 해"라고 소리를 지른다. 만약 아이들이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말로 해라"라고 제안하는 것은 두 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리 영리한 아이라도 언어적으로 인지적으로 이와 같은 추상성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걸음마기 교사는 아동이 이해할 수 있고 아동이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되어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는 언어적 안내가 있어야 한다.

다음의 예는 반응적이고 효과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을 잘 보여준다.

기호는 트럭을 다리 위에서 떨어뜨리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고 진규는 자꾸 기호가 놀고 있는 트럭을 빼앗거나 방해한다. 이 상황에서 교사는 타임아웃을 하지 않고 엄하게 진규에게 말한다. "진규야, 기호에게서 트럭을 가져올 수는 없어. 기호에게 한번 해 보겠다고 말하렴" 교사는 기호에게 말한다. "진규가 그 트럭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어. 선생님은 내가 지금 그것으로 재미있게 놀고 있는걸 알고 있어. 내가 다 하면 진규에게 주도록 내가 도와줄게. 진규와 나는 네가 끝날 때 까지 이 차로 놀고 있을 게. 지금은 트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규에게 말해주겠니."

그리고 나서 교사는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 너는 정말 그 트럭을 갖고 싶지? 기호가 다 놀고나면 네 차례가 되도록 선생님이 도와 줄게"라고 말함으로써 진규의 감정을 이해한다. 1, 2분을 기다린 후에 교사는 "기호야! 진규가 아직도 그 트럭을 기다리고 있어. 네가 그에게 그 트럭을 주면 그는 너에게 저 차를 줄거야." 그리고 나서 몇 분 후 교사는 다시 말한다. "기호야, 진규가 아주 많이 기다렸단다. 너는 이제 한번만 더 다리 위에서 차

를 가지고 놀 수 있어.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진규에게 주도록 해야겠구나. 그러면 다리 위에서 저 자동차를 갖고 놀 수 있단다. 와, 비라, 기호야, 네가 트럭을 주니까 진규가 웃고 있잖니. 자, 이제 우리는 다리 위에서 트럭과 자동차를 함께 굴리면서 놀 수 있단다."

위의 경우에서 교사는 그 상황을 이기는 몇 가지 통제를 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보여주었다.

넷째, 모든 제안과 설명에서 성인의 요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아이의 요구에 초점을 두려는 것이다.

다음은 아동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반응한 예이다:

"주스를 더 마시고 싶구나. 하지만 컵을 던질 수는 없단다! 어서 컵을 주어라. 선생님이 내가 잊지른 것을 닦을 수 있도록 휴지를 줄게. 그것을 다 닦고 나서 주스를 더 달라고 선생님께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그것을 가져올거야. 선생님, 주스 더 주세요"라고 말해라.

요약하면 전형적인 상황에서 타임아웃 기술은 발달적으로 부적합하고 오히려 걸음마기의 발달에 제한적이다. 행동 지도를 위한 보다 효율적인 전략은 성인의 요구보다는 아동과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걸음마기는 상황이나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걸음마기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실제

- 제한과 기대를 분명히 설명 하라. 예를 들어 "수지는 깨물면 안돼. 그건 아픈거야. 너는 사피는 깨물을 수 있어."
- 일관성을 유지하라. 제한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 나이에 적합한 기대를 해라. 걸음마기는 좋아하는 놀잇감을 함께 놀 수 없다. 그런 특별한 것은 두 개 이상을 준비해라.
- 정적해라. 약속은 반드시 바무리를 지어라. 예를 들어 "수미가 선생님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동안 기다렸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책을 읽어줄게"
- 안내를 위해서 긍정적인 접근을 사용해라. 예를 들어 "블럭을 전부 가지면 안돼", 대신에 "형준아 블럭, 몇 개만 갖다 주겠니?"
- 다시 한번 아이에게 기회를 주어라.
- 영아에게 적절한 시간을 주어라. 아이들은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 나서 행동한다.
- 모델행동을 보여 주어라. 아이들은 보상하고 협상하는 성인들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사들은 아이들 앞에서는 최소한의 협상을 할 수 있다. "선생님 제가 오늘 감기 걸려서 바깥놀이를 못 나가겠어요. 선생님께서 오늘 간다면 제가 내일 나갈게요" "좋아요! 선생님 감기, 빨리 낫으셔야지요."

Mary Ellis Schreiber(1999) Time-outs for Toddlers: Is our Goal Punishment of Education, Young children, 7.

바빠요 바빠

고영미 · 연산, 근로복지공단 연산어린이집
윤구병 글 / 이태수 그림 / 보리출판사 / 7,500원



가을이 거의 끝나가네요. 오늘이 입동이라 그런지 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방과후를 맡고 있어요) 추수동장(秋收冬藏)이라는글을 배울 때 이 책을 보여주었어요. '가을이 되면 거두어 겨울이 되면 곡간에 넣어 감춘다'
우리아이들이 이 말뜻을 이해 했을까요? 꼬떡거리기는 하는데 아마 그림을 보고서야 이해가 됐을 꺼예요.

이 책가득가을을 느낄 수 있어서 나이에겐 조금 안아울린다 싶어도 보여주었어요.

윤구병선생님과 이태수선생님의 도토리 그림책 시리즈 마지막이지요?

가을편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눈빠지는 줄 알았는데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마음이 어찌나 상송대던지 주절이 주절이 수도다 많이 떨었어요.

빨간고추가 화면 가득한 장면이 있는데 무시할게요. 안경벗고 봐도 빨개요.

부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바빠요 바빠' 에서는 특이한 아니 생소한 그림이 몇가지 있어요.

배경이 되는 집이 아주 특이해요. 굴피집이라고 하더라구요. 강원도 산골에 가면 볼 수 있대요. 눈이 많이 오고 나무가 많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집인 것 같아요. 흙으로 집을 짓고, 지붕은 참나무 껍데기로 올렸어요. 집의 반은 흙벽이고, 반은 나무벽인 것도 아주 특이하죠. 자세히 보시면 알 꺼예요.

이것 말고도 도라깨, 김장독 등 예전에는 본 적이 있지만 지금은 사골에서도 보기 힘든 우리의 생활 도구들도 볼 수 있어서 정겨웠지요.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궁금했는데 사용처까지 알게 되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젠 이 그림책에서 처음으로 본 건데 벽난로처럼 생긴 이상한 것이 있어요. '코굴'이라 그런데요. 방도 덥히고 불도 밝히고 할 때 썼대요.

책을 보면서 너무 너무 사골로 가고 싶었어요. 시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구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온기가 느껴지는 책이었어요.

어딘지 흐릿한 것같은 그림은 꿈속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머릿속에 그리보는 그림 같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보면 생활인의 모습을 그려서 그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그림이 살아있

어요. 그림책 그림이 움직이는 것같다고 느끼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작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실제로 얼마나 자세히, 얼마나 인상깊게 그리고자 하는 장면을 자기 것으로 소화 했는 지에 따라서 그림의 생동감이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있거든요.

글은 짧고 간결하니 양아들에게는 더할나위없이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도구들과 동식물도 나오거든요.

조금 큰 유아들에게는 그림 구석구석 찾아보게 하면서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이미 그렇게 보긴 하지만요)

글을 아주 잘 알면 혼자봐도 무리없구요.

할 얘기가 많은, 아니 해줄 얘기가 많은 그림책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가을은 정말 바쁘네요. 우리네 농촌도, 어린이집도요.

끝으로 인사드릴 분들이 있어요.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부아저씨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씩씩이에서 하룻밤 지내기

주혜민 · 서울 남부, 씹씩이어린이집

친구들끼리 하룻밤을 잔다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설렘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21일이 언제냐며 손꼽아 기다리는 녀석들의 모습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이었죠. 그런 아이들과는 달리 부모님들의 걱정은 종류도 여러가지 었답니다.

잠자다가 일어나면 아무데나 오줌싸는 상용이가 혹시 친구들 얼굴에 실레는 하지 않을까? 아직도 새벽에 서너 번 오줌을 안 누이면 영락없이 실수하는 초롱이, 엄마없이 절대 잠잘 수 없는 현하이 등등...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을 부모님들께 듣고 보니 저 또한 걱정은 되었지만, 실레임과 걱정의 교차 속에서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각자의 준비물을 챙겨 토요일 저녁 7시에 씹씩이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평일 토요일 저녁 씹씩이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저는 온갖 상상을 하였습니다.

7시가 되자 저 아래부터 시끌거리는 녀석들의 목소리가 저의 걱정을 씻게 했습니다. 모인 아이들과 엄마들이 싸준 도시락을 맛있게 먹고(사실은 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시락의 밥은 잠꼭밥과 아이들이 싫어하는 반찬으로 싸오게 했거든요.) 동네 산책을 갔습니다.

매일 오가는 맛있는 꿀목들이 불쑥불쑥 처음 지나가는 길처럼 낯설고도 정겹게 다가왔습니다. 몇개 안된 벌들을 찾고, 으스스한 꿀목에선 안무습다며 호기를 부리는 아이들이 평소의 아이들같지 않더군요.

그렇게 하룻밤 지내는 시작되었습니다. 짧은 글로 일일이 쓰자니 재미없을 것같아 사진 몇장과 함께 그날의 순간을 정리할까 하는데.... 훨씬 재미있겠죠?



힘찬반 아이들이 지내는 방이에요.
이날도 아이들의 의견에 따라
잠방에서 자지 않고 이 곳에서 잤답니다.
침소당번들이 잠자리 준비를 위해 청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닦다가 슬피는 앞으로 넘어지는
약간의 불상사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너무 재미있어 했습니다.



즐거운 표정이
아니라구요?
카메라를
의식해서 그래요.

평소에 봐두었던 잠자리 준비는 자신있죠.
어느쪽에 남자 친구들이 잘까?
서로 자리 정하기는 치열한 문제였습니다.
저 뒤에 초롱이 걱정이 되나봐요.
오늘 밤 무사히~ 아무사고 없이~
잘 되야 될텐데.



모두 감기때문에 고생하던 때라 걱정이 많았어요.
주성이가 쌍뿔뿔이 난다며
휴지로 두 뿔구멍을 막고 나타나
아이들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평소에 동물들과 섞여 있을 때와는
조금은 색깔이 다른 친구갑과
장난기가 발동되더라구요.
여자아이들이 이모 방에서 잠자리 옷을 갈아입을 때,
남자아이들이 문려와 문을 열라며
장난을 치기도 했지요.
"애들아~ 선생님 왔다. 문 열어요" 하면서...
현 선생님?
우린이모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죠.

아이들이 만든 작은 고리들이 모두 모여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하나하나의 마음들이 모여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감을 갖습니다.
아이들이 정한 규칙도 있습니다.
“씩씩이에서 하룻밤 자기 규칙”
첫째, 싸우지 않아요.
둘째, 화내지 않아요.
셋째, 재미있게 잘 놀아요.
넷째, 자기 스스로 정리해요.
다섯째, 엄마 아빠 보고싶다고 울지 않아요.
여섯째, 해면이도 잘 들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엄마,
아빠를 놀래주기 위해 작업하고 있지요.
하룻밤을 멋지게 지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정했지요.
아이들의 작품이 기대되지요!



엄마들이 해주시는
아침밥!
문밖에 살짝 갖다놓은 밥과
반찬들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우리 엄마는
무슨 반찬을 해왔을까?
수수께끼를 풀듯
수다를 떨었습니다.



무사히 하룻밤은 지나갔습니다. 성웅이도 초롱이도 오줌싸지 않고, 엄마아빠에게 전화할 때의 씩씩함, 잠자리
에서 들려준 아빠들이 보내온 편지의 감동이 아이들의 가슴속에 잔잔히 넘쳐나고 있었지요. 아이들이 너무 잘 지
내다 보니 섭섭한 건 부모님들인 것 같더라고요. 밤새 10분마다 눈을 뜨며 잠을 설치 피곤했지만 다른 교사들의
지원 전화와 일요일 아침 일찍 미나이모의 등장으로 잡다한 일들을 맡길 수 있어 더더욱 행복했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더니 그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아이들과 저 사이엔 말할 수 없는 끈끈함이 그날 이후
생겼답니다. 한번 해 보세요.

공(公)과 사(事)가 분명한 씹씩이 아이들!

추석을 앞두고 씹씩이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추석날 밤 보름달을 보며 빌 소원을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었다. 이모들과 동생들이 모두 모인 공적(?)인 자리
여자인지 씹씩이 형들과 언니들이 약간은 긴장한 얼굴로 소원을 빌었는데... 구구절절 어찌나 멋지고 거창한 소
원이 나왔던지 이모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공적(?)인 모임을 마치고 각 반으로 흩어져 힘찬반 끼
리의 사적(?)인 시간을 갖게 되었다. 거창한 소원의 감동을 조금 더 나눠 보려고 다시 한번 하심탄회한 소원풍이
시간을 가진 이모는 공/사 구분이 확실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놀랐다는데... 이모의 강력한 권유로 객관적인 도
표를 통해 씹씩이 형님들의 공사 구분 능력을 검증해 보기로 했다.



달님, 달님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공적(?)인 자리에서 빈 소원	사적(?)인 자리에서 빈 소원
주성	달님, 친구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달님! 딱지 않게 해주세요
미선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달님! 토끼 인형이 갖고 싶어요
초롱	달님! 달님! 친구들이 이모 말 잘 듣고, 동생 잘 돌보게 해 주세요	달님! 달님 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친구들 몸 건강하게 해주고, 우유도 잘 먹게 해주고 밥도 잘 먹게 해주세요.
웅	달님! 딱지 뒤집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달님! 내 딱지가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지	달님! 동생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달님! 토끼 인형 주세요!
슬미	엄마, 아빠가 몸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잘 크고, 권도 많고, 천사가 되게 해주세요
성웅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달님! 딱지 놓고 가세요!
현학	이모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딱지 갖고 싶어요
준현	달님! 동생들 잘 돌봐주세요.	달님! 가짜 자동차 갖고 싶어요

이상 찹쌀이 언니, 오빠들의 추석 소원을 분석해 본 결과 끝까지 생각을 굽히지 않은 소신파의 활약도 나름대로 눈에 띄지만, 뛰니뛰니 해도 역시 공사구분(?)이 확실한 찹쌀이 아이들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



여기서 잠깐!

새날반(5세반) 동생들이 달님에게 빈 소원도 볼까요?

달님! 달님! 공돌이 꾸 보고 싶어요 - 술찬

달님! 달님! 달 따 주세요(?) - 상구

달님! 친구들이 사이좋게 놀게 해주세요 - 희수

손씻구 밥먹고 싶어요(?) - 달재

아빠는 집에서 자구요, 수정이도 자고 있어요(?) - 수정

달님! 달님 사슴 인형 갖고 싶어요 - 혁주

달님! 달님! 비디오 많이 있게 해주세요 - 종현

달님! 달님! 친구들이 안 다치게 해주세요! - 주현



육아일기

나현이의 육아일기

- 그저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

김연숙 · 회원

2000년 9월 18일 월요일 - 12개월 + 4일

오늘 동물원에 갔다. 돌잔치도 못 해줘 미안한 마음에 나현이가 좋아하는 동물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다. 어린이 동물원에서 풀어놓은 당나귀를 코앞에서 본 나현이의 얼굴은 반짝반짝 놀라움이었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뭔가 곰곰히 생각하는 얼굴로 '호~' 감탄사를 연 발하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뿌우~" 했다. 뿌우~(코끼리)가 나오는 책에서 봤다는 뜻인 것 같았다. 나현이는 자신이 없는 것은 작은 소리로 말한다. 잠시 후 오솔길에서 풀을 뜯고 있는 당나귀를 보았는데 한 다섯 살쯤 된 남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당나귀를 만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앞을 못 보는 아이였다. 당나귀가 귀찮다는 듯 '푸르르르~' 소리를 치자 아이는 손을 멈춰서서 "엄마, 뭐야? 왜 그래?" 하고 물어보았다. 그 옆을 지나쳐 오는데 순간 가슴이 답답하면서 저러움을 느꼈다. 그런 느낌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아마도 엄마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인가보다. 예전 같으면 아이가 불쌍하다고 코끝이 찡 했을 텐데, 돌아오면서 계속 마음이 우울하고 무거웠던 것은 아이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었다.

건강하고 예쁘게 지라는 나현이를 보면서, 자식 때문에 가슴 아픈 많은 엄마들에게 미안한 생각까지 든다. 나현이를 보면 난 항상 감사한다. 잘 먹고 잘 놀고 건강하고 예쁘고 착하고 총명한 우리 딸이 주는 행복감 때문에 난 어떤 시련도 맛을 각오를 해야 할 것만 같다. 나현이! 방정맞은 엄마는 자다가도 문득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크고 작은 불길한 생각들로 불안하고 눈물까지 흘린 적도 있다. 병이지? 어떤 때에는 자식을 난 게 죄라는 생각까지

도 듣다. 옛날 엄마의 엄마가 밤에 늦게 다닌다고 엄마를 죽이려고 (?) 난리 칠 때를 생각하며, 신나게 놀고 있는 너에게 갑자기 한 마디 한다. "이다음에 밤늦게 돌아다니면 다리 통증을 뿌러뜨릴거야!" 사실 이때 직장 문제로 우린 그리 편치 않은 마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널 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한다. 여기서 뭔가 또 욕심을 부리면 너에게 나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정신병적인(?) 불안감에, 그저 너만 건강하게 자란다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엄마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엄마에게 너를 훌륭하게 키워야한다는 책임과 의무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욕심도 없고, 넌 엄마의 배를 빌어 태어난 독립적인 생명체일 뿐이고, 엄마는 그저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일 것이다. 엄마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건 어쩌면 널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네 앞에 일어날 시련들을 엄마가 두려워하는 건 그걸 헤쳐가는 너보다 지켜보는 엄마가 더 힘들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 가다. 결국 그 어떤 것보다 엄마가 너에게 가장 간절히 바래야 할 것은 네가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일 거다. 행복은 자기 마음 안에 있고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시련도 잘 이겨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너무 나약하고 마음도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나현아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서 따뜻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욕심도 부리지 말아라. 세상에는 멀리서 지켜만 보기에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다. 불평하고 욕심부리면 죄가 될 것만 같구나. 다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 필요하지 않을까.

2000년 9월 28일 목요일-12개월+2주

방금 자정을 넘겼다. 엄마는 지금 아빠와 씨웠다. 아니, 일방적으로 퍼부었다. 아직까지 극성인 모기 때문에 모기약을 꼭 켜고 자야하는데 약이 떨어진 것이었다. 하루쯤 그냥 자도 되겠지 싶었지만 당연히 수퍼에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기껏해야 500원밖에 더 비싸겠냐?' 하고 아빠를 보낸 것이 화근이었다. (항상 2200원씩에 샀었는데 이 시간에 문 연 수퍼는 조금 비싼 데였다.) 그런데 수퍼에 없다고 편의점에서 자그마치 3800원을 주고 사 온 것이었다. 엄마 '편의점=날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돈이 썩어 문드러졌냐?" 하고 모기약을 팽개치고 들어와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정말 돈 1600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아빠의 극성 때문에 화가 난 건가? 사실 그런 것도 있다. 엄마 네가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잘 놀고 잘 먹고 또 엄마, 아빠가 잘 돌봐주는 부족한 없이 행복한 아이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다소 과격한 것만 빼면 말이다) 근데 이때 욕심은 그게 아닌가보다. 뭐든 최고로 해 주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엄마 낯설고 싫다. 아빠는 원래 그런 속물이 절대 아니었는데 널 키우면서 지꾸만 이상해지는 것 같아 화가 난다. 아무튼 모기약을 본 순간 왜 눈이 화 뒤집혔는지,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았다. 맥주 한 캔 마신 셈 치면 되는데..... 아니, '모기한테 나현이 팔, 다리 내 줄래? 아니면 1600원 내 놓을래?'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1600원을 주고 말텐데..... 엄마도 이제 늙었나보다. 예전 같으면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는데 요즘엔 아니다. 도대체 내가 왜 흥분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처음 3800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에는 '자식에 벌벌 때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확 떠올라 화가 치밀었지만 잠시 후에는 내가 돈 계산에 노예가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 어쩌면 미리 준비하지 못해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든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서였는지도 모른다. 항상 그랬다. 20원이라도 더 비싼 집에서 물건을 사면 속이 상해 부글부글 끓고, 빙빙거리면서 민데서부터 물건을 사 들고 와서 계산해 보면 도합 한 500원 정도 싸게 산 셈이었다. 그렇다고 알뜰살뜰 한 품이라도 아끼는 살림꾼도 아니면서..... 완벽주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게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그래도 다행이다, 나현아. 우리에겐 너그러운(=아무 생각 없는) 아빠가 있으니깐 말이다. 방금 전 아빠가 널 재워 놓고는 문을 삐끗히 열고 들어와서 엄마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다.

"어보, 1600원에 목숨 걸어? 내가 내일 굶으면 안 팔까?" 웃기지? 그리고는 일론 나가라고 했더니 갑자기 두런두런 모기를 찾는다. "모기약 켜는데 모기는 왜 잡아?" 하고 묻자, 아편 이렇게 말꼬리를 흐렸다.

"비싼 모기약 켜 놓고 모기 물리면 그 원망을....." 엄마 성격이 문제가 많은 거니? 그치만 분명한 건 말이다, 지금 네 팔, 다리에 진물이 나고 딱지가 앉은 모기 물린 상처는 엄마도 싫단다. 그래! 쉽게 생각하자. 나현아! 모기 물리지 말고 잘 자라! 1600원, 아깝긴 하지만 할 수 없다. 우리 딸 잠 잘 자고 상처도 나면 안 되니까!

요새 미국은 대통령선거준비로 나라안 밖이 떠들석하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미국내 사람들이 떠들석하고 바쁜 것은 알겠는데 왜 다른나라들까지 덩달아 떠들석한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국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사람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 수백개의 신비로 포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즉, 자국에 국익을 위해서는 진실마저도 철저하게 숨겨지고, 필요하다면 세계 어디든 가리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한다.

세상읽기

미국 대통령 선거가 갖는 의미

박상의 · 회원

특히나 한반도 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해방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먼저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은 소련과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안보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모스크바3상회의 결과인 일시적인 신탁통치과정을 거쳐 한반도 민족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있는 조건과 처지를 제공하고 그러한 위치에 도달했을 때 자주적 정부를 수립하도록 지원한다는 애초의 합의 과정을 반복하고 마치 신탁통치가 영원한 분단이라는 논리를 우익에게 제공함으로써 그야말로 영원한 분단국가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전쟁의 패전국인 일본을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불러들임으로 미국을 대신하는 아시아내의 자본주의, 반공주의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경제블럭을 형성하여 아시아내의 시장경제를 여전히 미국위주로 이끌어 가고 있다.

미국은 그러한 나라이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은 그네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미국내의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와 경제구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가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나 안보상 아주 중요한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의미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는 다음 두가지 중 하나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지금과 같은 분할 정부의 형태, 즉 고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고어 대통령의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지배의 의회체제이다. 이 경우 우리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국주의적 외교정책을 계속 피 나갈 공산이 크다. 그리고 예산권을 쥐고 있는 의회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실제적인 경제적 부담은 한국이나 일본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과의 적극적 외교정책(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통일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에 따르는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내에 존재하는 우익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통일을 반대하는 불씨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공화당 천국의 미국정부 출현이다. 즉, 부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부시 대통령의 행정부와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단성이다. 이 경우에는 예상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상반되는 극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민주당 행정부의 포용정책을 대신한 대북강경정책의 등장이다. '냉전의 극복'이 아니라, '냉전 대결에서의 승리'가 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실제로 부시 후보의 외교브레인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은 그네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미국내의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와 경제구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가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많은 의문을 품어 왔다고 하며, 북한과의 모든 교섭에서 확실한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는 강경정책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간에 한반도 내의 평화공존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듯 하다.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되고 있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논리 속에 억지로 끼여 맞추어지게 된다. 지금,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한반도의 평화상태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 일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가 명심하여야 할 것은 한반도내의 운명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변함없이 각인될 때, 이전과 같이 강대국의 쪽두각시놀음 속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북한이 미국을 통한 남한정책을 한다고 북한을 불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작은 불신들은 또 다른 단절의 불꽃이 될 수 있다. 북한을 다른 눈으로 보기 이전에 우리를 반성하고 북한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의 틈바구니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현실적 영향과 힘을 키우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지구와 우주

임미란 · 회원

11월엔 지구와 우주란 단원을 가지고 인터넷을 교육과정에 활용해 보도록 하지요.

지구와 우주 하면 아이들의 호기심은 무궁무진한데 적용할 자료들이 적당하지 않아 괴로워서 두꺼운 전문 사전까지 동원했던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걱정 말고 여기 가보세요.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먼저 <http://myhome.shinbiro.com/~hsy1201/> 의 homepage로 가 봅시다.

여러가지 목차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주와 관련된 사이트 우주 탐험이란 타이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태양계 여행과 밤하늘 별자리 탐험, 그리고 자세한 우주 촬영 사진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우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달 탐사선 이야기와 그들 둘러싼

우주탐사 경쟁 그리고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풍부한 영상 자료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이들이 우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생명에 대한 관심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UFO 관련

참에 관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UFO와 외계 문명에 관한 이야기, 국내 목격 사례와 사진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어 참으로 흥미진진

합니다.

자! 좀더 전문적인 사이트로 가 볼까요?

<http://my.netian.com/~croran/> 여기는 우주 이야기입니다.

태양, 지구, 은하계, 별자리로 나뉘어 안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태양이란 테마로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태양의 태동과 구성 그리고 태양의 운명등을 간략하고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군요.

하지만 유치부 아이들 정도엔 조금 어렵겠어요 이럴 땐 번역이 필요하겠지요?

쉬운말로 말예요.

그런데 지구가 병들고 있대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아픈 건 아픈 거니 진단도 필수겠지요?

이곳 <http://webhost.kist.re.kr/users/nature/environment/evn.htm/> 에 가면 환경과 사람들이

란 타이틀로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와 지상의 대기오염,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 현상, 환경호르몬 등의 문제

를 다루고 있어서 그동안 개발이란 명목 하에 자연을 파괴시킨 결과들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니다.

여러분 인터넷 항해를 하실 땐 조금만 더 천천히 하세요.

여러분의 이해와 감동이 아이들을 무궁무진한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연물을 이용한 작은 전시회'를 다녀와서

편 집 부

지난 10월 18일 근로복지공단 안산 어린이집에서 열렸던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들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과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아이들과 함께 활동한 작품들을 모아 '자연물을 이용한 작은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어린이집은 개원한 후 4년 동안 매년 가을이면 민속놀이 한마당을 열어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우리나라 전래 놀이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해부터는 민속놀이 한마당과 더불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해 왔던 자연물을 이용한 여러가지 활동을 소개하고자 작은 전시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몇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아이에게 익숙해진 아이들이 올해는 더욱 재미있어하며 놀이에 집중했고 또한 자연물을 이용한 전시회 역시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물을 이용한 작은 전시회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활동의 결과들이 소개되었으며 아이들이 선보인 작품들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정성과 열정, 재미, 그리고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자연을 돌아보게하고 자연을 생활 속으로 가져온 교사들의 수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를 따라서 전시물들을 감상해보세요.

먼저, 어린이집을 들어가다보면 곡식과 한지를 이용한 홍보 포스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팔과 콩, 쌀로 '민속놀이 한마당'이라고 붙여놓은 포스터부터 자연의 냄새가 물씬나더군요.

그 옆에는 직접 염색해 볼 수 있도록 콩물과 치자물 끓여 우려낸 염색액이 있더군요.

문안으로 들어가면 정면 거실(?)에 아이들이 만든 액자와 소꿉놀이, 그리고 장기관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작품은 꽃액자입니다. 6세 아이가 한 작품으로 종이죽을 납



작한 네모로 만들어 말린 다음 색을 칠하고 그 위에 나뭇잎과 곡류, 조개 등을 붙였습니다. 액자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버팀대는 나뭇가지를 알맞게 잘라 액자 뒤에 붙였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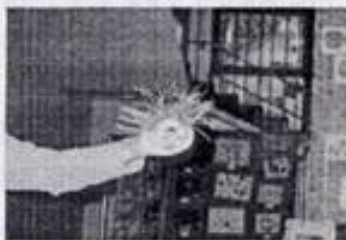
그 옆에는 식고와 나뭇잎을 이용한 액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종이 테두리를 식고로 모양을 내 붙여 말린 다음 테두리 안에는 들꽃 말린 것으로 한껏 분위기를 냈더군요. 그리고 쌀과 녹두, 보리 등에도 색을 입혀 멋진 액자를 만들었습니다.

정면의 전시물을 보고 왼쪽으로 돌아서면 마른 야채와 옥수수를 이용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 옥수수나 무말랭이 등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그냥 느낌 그대로 붙여 훌륭한 자연물 콜라주가 완성되어 있더군요.

다시 뒤를 돌아 나가는 문 쪽으로 가면 먼저 병풍이 눈에 띕니다. 한지에 먹물과 물감을 이용한 훌륭한 동양화 병풍입니다. 7세 아이들이 동양화에 나오는 그림을 보고 나름대로 표현했다고 하더군요. 멋진 쇠키와 함께 말이죠.

그 옆으로는 칸칸이(?)에 여러가지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름 바다에 놀러갔다가 주워온 조개를 이용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더군요. 커다란 조개를 이용해 얼굴을 만들고 솔잎으로 머리카락을 붙이고, 작은 조개와 소라 등을 이용해 만든 이빠가 담배 피우다가 엄마가 뭐라고 하나 얼굴이 빨개져요'처럼 재미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답니다. 찰흙과 풀, 솔방울 등을 이용한 토우도 많구요.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한 아이가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 "우와! 멋지다! 머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어린이집 문의차 부모님을 따라온 6세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이거 니 친구들이 만든거야" 했더니 더 놀라면서 자세히 쳐다보네요. 저도 그 아이와 함께 한하나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을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볼 때는 그냥 그런 작품인데 아이들이 달아는 제목을 보면 그 작품에 너무 잘 어울리고 정말 그런 것처럼 보여서 예술성이 넘치는 작품으로 느껴지는 거.... 꿈보다 해몽이 좋아서 그럴까요?

이렇게 1층을 찬찬히 둘러보고 나면 자연히 시선은 2층으로 가지요. 2층 가는 길에도 재미있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 난간에는 알록달록한 조개껍질이 주욱 걸려있습니다. 엄격한 또는 그냥 끈에 아이들이 조개 하나하나에 그린 그림들을 본드로 붙였습니다. 지난 여름 어린이집 구석에 조개 말리느라고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는 고영미 선생님의 말이



떠올라 "그 썩은내 나는 것이 이렇게 예쁘게 변신했네" 하는 생각에 저도 냄새를 맡아보며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그 위에는 아기자기한 꽃병들에 들국화가 꽃혀져 있습니다. 꽃병은 유리병(그냥 흔한 술병이나 음료수병)을 끈으로 엮고 그 사이사이에 들꽃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층에는 죽통을 이용한 화병이 있는데 죽통은 밥집에서 밥먹고 얻어온 죽통입니다. 죽통에 들꽃, 대추, 곡류 등을 붙여 그윽하면서도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들꽃화병을 살펴보다가 고개가 아파 머리를 돌면 한지에 그린 먹물 그림이 보입니다. 옛이야기를 듣고 그 중 생각나는 내용을 먹물과 한국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은 재료가 그래서인 정말 옛이야기를 듣는듯 친근하고 푸근했습니다.



작은 전시회는 한 어린이집에서 양아부터 방과후 아이들까지 자기들의 역량껏 자연물을 이용해 작품들을 내 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연물을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에 있는 여러가지 재료를 시설에 보내준 부모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역시 자기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에 상당히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결과물들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시회 관람 태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기회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활동 재료를 찾고 구하는 과정에서 함께 참여하고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재료가 아닌 자신들의 생활이 담겨있는 재료들로 작업하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이었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의젓하게 전시되어 있으니....

어린이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가을 저녁이 어제보다 더 싱그러웠습니다.

24시간 보육을 마치며.....

장정숙 · 부산 칠푼쑼어린이집

아래의 글은 부산지부 소식지 8,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올해 나는 서른 여섯이다.
그리고 아직은 미혼이다.
먹은 만큼 먹은 나이인데 혼자인 탓인가? 제멋에 겨워 내 방식대로 물무랄라 살고 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그 자유에 족쇄가 생겼다.

‘이시원’

생후 22개월의 남아.
낮은 잤병과 기저귀... 24시 보육.
내게 아줌마 아닌 아줌마의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다.

처음 나는 (또한 내 주변 사람들은) 24시간 보육이 힘든 일에서 육체적으로 견뎌낼 수 있을가를 염려했었다. 내 생활이 완전 지당(?)할지는 불편할지도 걱정 중의 한가지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그건 어린이집에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흡사했는데 심리적 부담감과 걱정은 더했다. (교사의 아이와는 달리 시원은 일주일에 한 번 엄마를 만나는 상태였음)

시원은 낮과 밤으로 변화되는 내 태도에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제한과 허용의 범위가 넓혀지고 좁아지는 것이 대부분 경우)

또한 시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에 대한 독점욕을 나타내었다. 영아반 담당이었던 나는 당혹스러웠고, 적잖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다. 다른 영아들을 안기나 업기라도 하면 품에서 떼어놓을 때까지 내 다리를 부여잡고 영영영.

그런 시원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어린 마음에 상처와 결핍으로 남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기도 했다. 시원을 달래기 위해, 정확히 울음소리로부터 어린이집

이 자유롭기 위해, 안고 있는 다른 영아를 내려놓을 때 ‘잘 못할 것이다’ 싶어 교사로서 변뇌도 많았다. (결에 있는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는 오죽했으랴!)

아침밥을 따로 먹이고, 냉장고 사용이 일정정도 자유로운 시원을 다른 아이들이 특별대우 받는다는 느낌은 없었을까? 혹여 차별의식이나 소외감은 느껴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눈치가 보이는 것도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 중 하나였다.

24시간 보육이라는 게 그 특성에 맞는 환경의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막연한 생각을 할 때 시원은 자기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의미에서 보육시설의 다양성은 정말! 절대! 정취! 보장되어야 한다)

나는 다시 이전의 나로 돌아왔다.

심야영화도 보고, 친구들이랑 가을 산행도 계획하고... 그러나 어떻게 자유로운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라는 참자유의 의미를 생각한다. 내 생활이 아이의 생활에 맞춰지고, 나를 불편하게 속박했지만 나는 행복했고 평화로웠다.

규칙적인 생활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전적으로 내게 의탁해 오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의무감에서, 어느날 든든한 동지들 가진 포만감을 느낀 건 무엇보다도 아닐까?

요즘 나는 “결혼”에 대해 이전의 생각을 접고 있다. ‘어떻게 결혼이란 자기자유를 저당잡히고 해체시키는 것이 아닐까?’하던 시답잖은 생각을.

이렇게 되면 내 24시간 보육의 개인적인 평가는 “결혼”이 되는 건가?

음... 결혼해야겠군!.....



보육의 질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보육교사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충은 괄목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적 확충에 비해 보육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 체계, 보육비용, 프로그램, 평가과정 등, 그러나 무엇보다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돌보는 교사의 질적 수준이 아달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격기준이나 처우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보육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폭넓게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교사의 자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방안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보육관계자들을 모시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시: 2000년 11월 15일(수) 15:00 ~ 17:00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주최: 공동육아연구회 / 한국보육교사회

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발제

보육사업의 발전 방향

여 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개선 방향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토론

김재홍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사무관)

진귀수 (전국어린이집놀이방 연합회 회장)

박현숙 (공동육아연구회 현장교육지원 전문가)

황미혜 (한국보육교사회 보육정책위원)

이만수 (전국보육교사회교육연합회 부회장)

종합토론

강연회장 오시는 방법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4번출구



알림

“한번보자! 카페”로 오세요.

선배 회원들과 후배 회원들, 그리고 우리 회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따뜻하게 서로의 얘기를 도란도란 나눌 수 있는 ‘한번보자! 카페’를 마련합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반가운 얼굴들을 확인하세요.

우리 진짜무 한 번 봅시다!!!

일시: 2000년 12월 1일(금) 오후 7시30분

장소: 여성사회교육원 청산교육장

(이 날은 확실히 카페로 변신합니다. 기대하세요~)

나주산 신고배 팝니다.

나주에서 배농사를 짓는 신랑과 살고 있는 이선주씨의 소개로 저렴한 가격에(택배비 포함) 배를 팝니다.
전국 어디로든 산지에서 직접 택배로 배달 됩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국민은행 019-21-0952-190 예금주: 이윤경 으로 입금하신 후 02-2275-8505 로 전화하세요.

신청하실 때 배를 받을 장소의 주소와 연락처를 꼭 말씀해 주세요.

나주 신고배 15kg 한상자

크 기	수 량	가 격
中	20~25개	30,000원
小	25~30개	22,000원
배급	150개	50,000원

* 가격은 시세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알림

’00한국보육교사회 현장연구 공모 안내

2000년 보육교사 현장연구 공모전

한국보육교사회는 보육교사의 연구·실천 작업을 지원, 격려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현장연구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보육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교사들의 연구, 실천내용을 발굴하여 확산하고, 현장의 요구와 제안을 보육제도 정책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보육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주 최

■ 한국보육교사회

▶ 모집 대상

■ 보육교사

▶ 공모 부문

■ 보육의 고유한 특성이 담긴 교사의 연구·실천 내용(주제에 제한 없음)

■ 보육교사 관련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자격제도, 재교육, 교사 처우 등)

▶ 상 금

■ 연구하는 교사상: 상금 30만원(1명)

■ 실천하는 교사상: 상금 30만원(1명)

■ 발전하는 보육상: 상금 30만원(1명)

■ 장려상: 상금 10만원(약간 명)

▶ 응모 방법

■ 신청 접수: 한국보육교사회

■ 접수 기간: 2000년 9월~2000년 12월 15일까지

■ 접수 및 문의처: 한국보육교사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 여성평화의 집3층

전화 02-2275-8505 전승 02-2275-8506

접수는 우편으로 하고 마감 당일 소인 유효함.

* 심사결과는 2001년 1월 중 개별통보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된 작품의 저작권은 본회가 소유합니다.

* 시상식 및 발표회는 2001년 본회 총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식과소식

- 9월1일 전교조에서 주최한 유아교육법안관련 내부 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9월2일 평택보육교사교육원의 보수교육에서 이윤경 공동대표가 현장실무에 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 9월4일 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의 김재홍 사무관과 본 회의 이기원, 이윤경 공동대표, 서은희 부회장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면담에서 본 회를 알리고 앞으로의 정부내 보육정책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9월6일 국회여성특위에서 주최한 여성단체장 초청 정책 간담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장애통합보육의 필요성과 양아보육환경화를 제안하였습니다.
- 9월7일 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에서 주최한 보육관계자 오찬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9월 15일 경기지부 추진위 회의가 있었으며 하반기 사업계획과 일정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9월19일에 본 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아교육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여성복지학교 참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9월20일 삼성복지재단에서 주최한 서울시 보육비용 산정 연구 심의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9월 20일 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연석회의에 이정녀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9월21일, 22일 여연에서 주최한 여성복지학교에 이윤경 공동대표와 이인희 정책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윤경 대표는 본반 토론회에서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 9월 23일 제4차 이사회가 있었으며 상반기 중앙 및 지부, 지회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9월26일 전교조에서 유아교육법관련 2차 내부토론회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9월29일 보육정보연구소와의 만남에 이기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여 회 활동에 관해 전달하고 이후 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9월 30일 한국보육교사회와 파라다이스복지재단 공동주최로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교사 연수가 한울복지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보육교사의 장애통합의 중요성과 장애아동 선별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습니다.
- 10월10일 본 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관한 본 회의 입장을 정리하고 보육교사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할 것을 논의하였습니다.
- 10월12일 이대 간호학과에서 진행중인 영유아보건 프로그램 개발 2차 자문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소식과소식

- 10월 13일 경기지부추진위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지회별 교육강화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 10월 14일 2000세계여성대행전 한국대회가 종로 탑골공원에서 있었으며 빈곤과 폭력 추방,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본회에서는 이기원, 이윤경, 이경녀, 박인혜, 김진숙, 이상옥, 이선미, 조선정, 강영신, 구미진이 참석했습니다.
- 10월20일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2차 확대회의에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회의 유아학교체제로의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 10월 21일 미술소모임이 어깨동무에서 있었으며 이날 한지 염색하기와, 자연물을 이용한 압화, 풀라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 10월24일 여연 대안사회정책연구소에서 주최한 <UN 여성차별철폐협약 20년과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심포지움에 본 회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0월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주최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본 회 이윤경 공동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시설장 자격기준과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학과 교과목 조정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10월27일 이윤경 공동대표는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본 회의 입장에 관해 월간지 <새기손가락>과 인터뷰했습니다.
- 10월 19일 서울부터 21일 인천, 26일 수원, 11월 2일 부천, 11월 9일 안양에서 '한국보육교사회부설 교육센터 가을강좌- 전통놀이감 만들기 강좌가 실시되었으며 등구미 짜기와 형질인형 만들기, 여치집 만들기 등의 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부소식

서울지부

- 9월 20일 서울지부 교육강좌 - 전래노래 강사 : 이상옥 -를 성향리에 마쳤습니다.
- 9월 30일 노수산 선생님과 함께하는 미술소모임이 바롬어린이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10월 7일 신입회원교육이 있었으며 이날 교육을 받은 신입회원은 이순덕, 김인경, 남근영, 정선진, 이승현, 이진선입니다.
- 10월 7-8일 서울지부 회원의 날 행사로 강촌으로 M.T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지부

- 8월 19-20일에 지부 여름수련회를 강화도 한살림 휴집으로 다녀왔습니다.
- 9월 16일 회원의 날이 있었으며 하반기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했으며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 충치 예방을 바라는 인천시민모임에 연대하여 '수돗물 불소화' 조례제정 청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지부

- 9월1일 부산여성단체연합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가 연수에 박찬주 지부장과 사상지회장이 참가했습니다.



소식과소식

- 9월 6일부터 편해문선생님과 함께하는 민속문화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9월 24일 회원나들이를 산후사로 다녀왔습니다.
- 10월 27일 교사계교육으로 아동관에 관한 주제로 교육을 했습니다. 발제자는 김양희, 나선임, 장정숙, 김혜원, 박찬주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친구지외

- 옛 아이들 노래, 놀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각 어린이집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래지외

- 이창철 선생님을 강사로 유아체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상지외

- 가자가가 감나무 2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 옛아이들의 놀이 위주로 유아들에게 맞는 놀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

축하합니다.

- 명예회원 이은애 선생님이 9월 30일 결혼했습니다.
- 부산 코보어린이집의 이은정 선생님이 11월 5일에 결혼하십니다.
- 대구 한사랑 어린이집의 채미선 선생님이 11월에 결혼하십니다.
- 세 분과 더불어 짝꿍들 모두 행복하세요.
- 부산 꿈꿨어린이집의 이미애 선생님이 대표교사가 되셨습니다. 자급보다 더 책임이 막중해지고 힘들지 모르지만 선생님이라면 너름히 대표교사를 해내

시리라 믿습니다.

- 강화도의 임미란 선생님이 순영이 동생을 가졌습다. 자연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어떨까요? 초가집 지붕에 걸린 기저귀 잡고 힘내는 옛여인이 떠오르는 건? 병원에서 태어나겠지요.
- 보육정보연구소의 서정은 선생님이 예쁜 둘째아기를 순산하고 산후 조리도 하기전에 논문준비에 바쁘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 보육정책위원인 황미혜 선생님이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해 젊은 친구들 머리를 따라가느라 헉헉거린답니다. 대학원 입학 축하하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했습니다.

가을이라 그런지 부쩍 이사한 회원들이 많이 있네요. 서은희 부회장님, 수원의 강영신 선생님, 인천의 이은희 선생님, 최화영 선생님이 이사했습니다. 가무비누와 상냥 사들고 집들이 가야되는데... 모두 새로운 집에서 좋은 꿈꾸시고 잘 사세요.

임내세요.

- 인천 예술어린이집의 이순 선생님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이 드는 가을입니다. 더불어 쓸쓸하시다니요. 너무 가을 많이 타지 마시고 기운내세요.
- 인천의 이은경 선생님 부모님이 이번 태풍으로 하 시던 과일농사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힘내세요.
- 부산의 김향진 선생님이 몸이 안좋아 병원도 다니고 비싼 약도 먹는데 별 효력이 없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회원 모두 가부좌를 틀고 부산으로 건강한 기운을 보내주자요. 암!

10월부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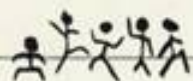
외비를 내셨습니다.

- (서울자부 북부지회) 9월 완납
- (서울자부 남부지회) 8월 일부
- (인천자부) 10월 완납
- (광주전남자부) 7월 완납
- (수원지회) 8월 완납
- (자료회원)
- 이선규, 김수진, 정혜선, 박명옥, 이현주, 대동대학, 손현주, 백송비
- (후원해주셨습니다)
- 아운정 6만원, 강영신 5만원

본회 9·10월 활동일지

- | | |
|-------|------------------|
| 9월 1일 | 취업지원 교육 - 연극놀이 |
| 5일 | 확대집행위 |
| 7일 | 취업지원교육 - 연극놀이 |
| 8일 | 취업지원교육 - 연극놀이 |
| 15일 | 경기자부 추진위 회의 |
| 16일 | 미술소모임/ 발도르프 소모임 |
| 18일 | 확대집행위 |
| 19일 | 보육정책위 |
| 20일 | 취업지원교육 - 컴퓨터 교육 |
| 22일 | 취업지원교육 - 컴퓨터 교육 |
| 23일 | 재4차 이사회 |
| 27일 | 취업지원교육 - 컴퓨터 교육 |
| 29일 | 취업지원교육 - 컴퓨터 교육 |
| | 한국보육정보 연구소와 간담회 |
| 30일 |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교사 연수 |

- | | |
|--------|--------------------------------|
| 10월 4일 | 확대집행위 |
| 5일 | 취업지원교육 - 국악과 전래놀이 |
| 6일 | 취업지원교육 - 국악과 전래놀이 |
| 9일 | 전임회장단과의 간담회 |
| 12일 | 취업지원교육 - 국악과 전래놀이 |
| 13일 | 취업지원교육 - 국악과 전래놀이 |
| | 경기자부 추진위 회의 |
| 14일 | 빈곤과 폭력 추방을 위한 2000 세계여성대회 한국대회 |
| 17일 | 확대집행위 |
| 19일 | 교육센터 가을강좌 - 서울지역 |
| | 취업지원교육 - 놀이감제작 |
| 20일 | 취업지원교육 - 놀이감제작 |
| 21일 | 교육센터 가을강좌 - 인천지역 |
| | 미술 소모임 |
| 23일 | 중간회원과의 간담회 |
| 24일 | 보육정책위 회의 |
| 26일 | 교육센터 가을강좌 - 수원지역 |
| | 취업지원교육 - 놀이감제작 |
| 27일 | 취업지원교육 - 놀이감제작 |
| 31일 | 확대집행위 |



편집부에서

연초에 신년 계획 세운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듯한테 어느새 입동을 지나 나무들이 앙상해지고 있네요.

세월이 빨리 지나는 걸 보니 저도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지라는 걸 보면 마냥 흘러간 시간은 아니네요. 제가, 우리들이 보낸 1년이 우리 회와 어린이집,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녹아들어 있겠지요?

모두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세요.

지난 호에 이어 연재하기로 했던 특별강연 - 독일교수초청강연회 - 는 회지 사정상 다음호에 연재합니다.

그동안 '세상읽기'부터 '어린이집에서의 하루' 까지 몇해 동안 한 회도 빠짐없이 집필해 주신 씩씩이 어린이집의 주혜민 선생님이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늘 가슴 뭉클해지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진주에 내려가서도 잔잔한 감동을 저희에게 보내 주시면 좋겠네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교사연감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치,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 매월 1만원+회(연회비 12만원과 지부, 지회별 일정 회비)를 납부합니다.
- 지부, 지회의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 중앙과 지부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회 지부, 지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이나 판매자료 구입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회원이 되시면

- 「우리네 아이들」 정기 구독료 30,000원(6개월 구독료 16,000원)을 납부하시고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회에서 주최하는 대내외 교육,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 자료 회원은 중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로 가입
정회원은 중앙 또는 홈페이지로 연락 → 지부, 지회로 연결 → 지부, 지회의 가입 절차에 따른 송금구좌: 국민은행 019-21-0952-190 이윤경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

- 보육관련 자료 및 책자 발간
- 보육종사자 교육
- 보육관련 연구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 02-2275-8506 / 천리안, 나우누리 KDTA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kdta.or.kr>

한국보육정보연구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68-3954 / 전송 02-2275-8506 / 천리안 KDIRC